

해돋이

미래를 여는 도서관, 가고 싶은 도서관

2021년
제34집



해돋이

미래를 여는 도서관, 가고 싶은 도서관

2021년
제34집

CONTENTS

발간사	06	독서토론으로 알게 된 즐거움	20
특별기고		김나경(책수다)	
꿈의 물질에서 악마의 물질로: 플라스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08	독서와 독서토론에 대해	22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조수현(책수다)	
나눔마당		독서동아리	23
모든 것은 눈에서 비롯되었다	10	이지혜(넝쿨)	
김진(동화작가)		나전칠기	24
		김명옥(한마음)	
1. 독서동아리 글마당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고	26
마니또	13	유영숙(섬돌)	
신건우(한결)		아름다운 가을 단풍	28
한알 독서동아리와의 만남	14	윤영숙(소나기)	
석예강(한알)		창원도서관 독서동아리 발자취	30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일상	15	2. 참여 글마당	
박시연(한알)		소중한 우리 가족에게 도서관은	32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미덕의 보석	16	박정선(2021년 책 읽는 가족)	
이희수(한결 강사)		코로나가 가져다 온 선물	33
NC 센터 과연 올바른가?	18	이은지(2021년 책 읽는 가족)	
민무겸(글밭)		우리 가족의 소중한 삶의 공간, 도서관	34
		김경옥(2021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가자)	

해돋이

미래를 여는 도서관, 가고 싶은 도서관

2021년
제34집

인생에 색을 입혀준 자서전 쓰기 ————— 35
황홍길(길위의 인문학 참가자)

나만 몰랐던 도서관 ————— 36
김슬기(2021년 단시간 근로자)

근육통으로 시작된 사서 실습 ————— 37
김영웅(2021년 사서실습생)

새로운 도전, 사서 실습 ————— 38
박서정(2021년 사서실습생)

문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서 ————— 39
전혜원(2021년 사서실습생)

책방일기 ————— 40
오누이북앤샵 장참미(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연계 책방)

모두의 19호실 ————— 42
책방19호실 박지현(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연계 책방)

전염병과 공생이라니? ————— 44
청보리책방 최미숙(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연계 책방)

잘가! 바다쓰레기, 안녕! 깨끗한 바다! ————— 46
김소윤(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초등부(저) 창원도서관장상 수상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소원 ————— 47
박윤서(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초등부(고) 창원도서관장상 수상자)

단단한 우정의 실마리 ————— 48
이수빈(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청소년부 창원도서관장상 수상자)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고 ————— 50
윤부남(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일반부 창원도서관장 수상자)

3. 참여 마당

독서진흥행사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응모 글 ————— 53

‘쉴! 난 너의 책 마니또’ 응모 글 ————— 54

‘당신을 위로하는 쉼표 하나, 도서관’ 응모 글 — 55

‘38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응모 글 ————— 57

4. 직원 글마당

종합자료실 막내 사서의 하루 ————— 60
곽상효(문헌정보과)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 62
김가은(운영지원과)

시작 - 밖으로 ————— 64
양한기(독서문화과)

부록

2021 년 독서동아리에서 읽은 책 —————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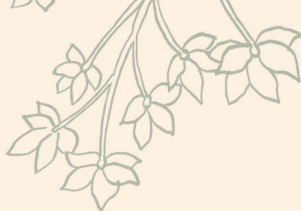
2020년부터 이어온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팬데믹의 일상이
올해 내내 돌파감염, 델타변이, 오미클론 변이로 이어지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는 휴관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마음으로
매일 도서관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지 한달 만에
다시금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에서
이렇게나마 도서관 문예지로 시민 여러분을 만나 뵈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서른네 해를 맞는 해돋이에 아주 다채로운 글들이 실렸습니다.
책읽는가족으로 선정된 가족들의 글은
도서관에서 느끼는 행복이 저에게까지 전달되어 함께 행복했고,
근육통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서실습생의 글에서는
힘들어도 도전하는 젊음이 부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함께했던
동네책방 책방지기님들의 글도 함께 실려
더욱 풍성한 문예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 회원들의 글에서는
독서로 다져진 저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찬란해질 준비!라는 글귀를 읽었을 때는 같이 가슴이 뛰었고,
독서동아리에 가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인생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글귀에서는
동아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잊혀져가는 나전칠기에 대한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글 등
한 분 한 분의 글을 맛깔나게 읽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귀한 손님(?)인 청소년의 글에서는
조금씩 스며든 도서관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
감사하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다채로운 글들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저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누리호의 비상을 생각해봅니다.
비록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지만,
어렵고 힘든 우주 탐사를 꿈꾸는 누군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도 2022년 새로운 꿈을 펼치려고 합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롭게 통합 자료동을 개관하여
시민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는 창원도서관이 되기 위해
직원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2022년에는 팬데믹 일상이 아닌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찾아오기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장 정 창 모

꿈의 물질에서 악마의 물질로

플라스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수열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환경대학원에서 폐기물을 공부한 후 점점 심각해지는 쓰레기 현장을 알기 위해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을 시작했다. 현재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돕는 쓰레기 해설가이자 쓰레기 통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2020)가 있다.



수십 만 년 후 누군가가 현재 지층을 조사한다면 플라스틱의 흔적이 남아있는 화석을 발견할 것이다. 그 때까지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플라스틱을 남용하면서 지구 생태계에 생채기를 남겼는지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을 것이다. 한 때 꿈의 물질로 불렸던 플라스틱은 이제 악마의 물질로 전락해 버렸는데,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일회용 플라스틱의 등장

플라스틱은 장점이 많은 물질이다. 가볍고, 잘 변하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모양, 색깔, 성질대로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석연료를 원료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소비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플라스틱의 다양한 장점들 때문에 인간은 플라스틱 소비를 즐기게 시작했고, 플라스틱 제국의 영광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다. 1955년 미국 라이프지 잡지 표지에 실린 사진을 보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온 가족이 환호하면서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도래할 플라스틱 일회용 사회를 인간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이다.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등장으로 앞으로 주부들이 설거

지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기사로 내 보냈다. 1950년 플라스틱 생산량이 2백만 톤에 불과했다면, 65년이 지난 2015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4억 톤으로 2백배가 증가하였다. 1989년을 기점으로 플라스틱은 부피기준으로 철강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플라스틱은 현재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제국에 충성하는 신민이 되었다. 롤랑 바르트의 말대로 물질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로 물질로 대체되면서 전 세계가 플라스틱이 되어 가고 있다.

● 환경호르몬의 공포

그렇지만 플라스틱 산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그늘도 깊고 커지기 시작했다. 플라스틱이 인간을 안전하게 한 만큼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혜택이 커지는 만큼 비용도 커지고 있다. 이것을 플라스틱 패러독스라고 한다. 플라스틱 환경영향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문제가 된 것은 환경호르몬이다. 플라스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각종 첨가제가 새어나오면서 인체 내 호르몬 분비체계를 교란한다는 사실이 197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1972년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는 미국인 100명 중 86명에게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되

었다는 연구결과를 전하면서 “인간이 이제는 조금씩 플라스틱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환경호르몬에 대한 공포는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하다.

환경호르몬 문제에 더해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플라스틱이다. 바다로 투기된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식품의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까지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이 호흡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나노단위의 플라스틱은 호흡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세포를 뚫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한다. 올해 나온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될 경우 70살이 되었을 때 약 5만 개의 플라스틱이 인체 내 장기 곳곳에 축적이 될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물고기 뇌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고,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뇌까지 이동한다고 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미세플라스틱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골칫덩이가 될 것이다.

● 탈 플라스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탈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는데, 탈 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 없는(plastic free)’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넘어선(post plastic)’ 사회를 의미한다. 플라스틱은 이미 인간문명에 떼 낼 수 없을 만큼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플라스틱 없는 사회란 문명이 붕괴된 상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탈 플라스틱이란 현재의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넘어선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의미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플라스틱이 주는 장점은 품으면서 문제는 현명하게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플라스틱을 소비하면서 물질소비의 민주화를 구현했다는 지금은 이것을 넘어서 플라스틱 소비를 현명하게 통제할 수 있는 물질소비의 근대화가 필요하다.

● 플라스틱 문제 해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플라스틱 소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일회용품과 일회용품 포장재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일회용 사회에서 재사용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음식과 음료소비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다회용기 대어·세척산업이 필요하다. 다회용

기 대어·세척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포장재 없는 매장도 동네 단위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와 생산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회용 포장재 없이 필요한 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최근에 포장재 없는 매장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고,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리필스테이션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의 흐름이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 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을 종이 등 다른 재질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친환경 재질이니까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소비자에게 줘서는 안 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생분해 플라스틱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해서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대체 효과가 있는 품목에 집중해야 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의미를 가지는 곳은 환경에 투기될 가능성이 높은 어구나 농업용 멀칭비닐 같은 제품이다.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다시 자원으로 순환시켜야 한다.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폐기물 관리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30%대에 불과하다. 기술적으로도 50%를 넘기 어렵다고 한다.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깨끗한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모을 수 있는 체계와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얻을 수 있는 재활용 기술개발이 동시에 필요하다.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재생원료 구매를 통해 재활용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미래에 대한 담대한 기획

탈 플라스틱 사회로 가는 것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강고한 실천의지와 치밀한 실천전략,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결합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지만, 어렵다고 회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은 바다를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돈키호테는 “현실은 진실의 적”이라고 했다.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어 도달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담대한 기획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눈에서 비롯되었다

김진 / 동화작가

고향인 강릉은 눈이 많은 고장이다. 한번 내리면 어른의 무릎 정도까지 내리는 건 보통이고, 키를 훌쩍 넘을 때도 있다. 눈이 산을 지우고, 강을 지우고, 길을 지우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영락없이 눈 속에 파묻혀 지내야 한다. 더럽고 어두운 것들이 모두 눈에 복속되고, 눈 앞에서 모두 평등해지는 시간이다. 웬지 통쾌한 기분도 들었다. 또한 일상생활이 멈추어지고 잡다함 속에 살던 삶은 일시에 고요해진다.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 시간은 일부로 내려고 해도 잘 오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워 헤쳐 나가야 할 하루하루의 삶이 있고, 과제가 있다. 때문에 강제로 누군가 멈추게 하지 않으면, 마치 달리는 자전거에 올라탄 것처럼 쉼 없이 페달을 돌려야 한다. 멈추는 순간 쓰러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페달을 돌리다 보면 어느새 나는 사라지고 생활만 남는다. 그러므로 대자연의 질서에서 오는 이런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눈에 의해 멈춰진 시간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겨울만 되면 눈을 기다린다.

눈이 만들어낸 풍경

눈을 기다리는 또 다른 이유는 아름다운 풍경 때문이다. 우리 집은 나지막한 산 아래 있었는데, 푸른 소나무 가지 위에 하얗게 내린 눈 광경은 정말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내뱉어질 정도로 아름다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 겨울에는 마당가 감나무의 감을 미처 따지 못했다. 빨갛게 익은 감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그 위로 눈이 내렸다. 마치 빨간 알전구가 켜진 크리스마스트리 같았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때 맞은 그 풍경은 비감했지만 아름다웠다.

눈에 대한 기억은 대체로 아름답다. 물론 눈 무게에 못이긴 나뭇가지가 똑똑 부러지는 소리, 지붕이 뚝뚝거리는 소리는 약간의 두려움을 주었지만 즐거운 기억이 그 두려움을 압도한다. 눈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삽, 가래 등을 들고 나와 눈을 쳐낸다. 눈이 많이 쌓이면 치우기 힘들기 때문에 눈이 쏟아지는 도중에도 나와서 수시로 길을 내야 한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 모두 나와 눈을 치는 일은 또 얼마나 흥겨운지.

아이들은 어른들을 도와 눈을 치운답시고 나왔지만, 실은 노는 일이 더 많다. 눈사람을 만들고, 눈을 뭉쳐서 던지고, 삽으로 다져 만든 눈 벽돌을 쌓아올려 본부(우리들만의 공간을 우리는 본부라고 불었다)를 만들었다. 마을의 장난꾸러기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골려줄까 늘 궁리를 한다.

함정을 파는 것은 눈 내린 겨울날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어른들이 눈을 골목 담벼락에 높이 쌓아올리면 그 눈덩이를 꺾꺾 밟아 다져가며 피라미드를 만든다. 옆쪽으로 계단을 내 눈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간 뒤 밑창이 닳은 신발을 신고 여러 번 타고 내려오면 제법 튼튼한 미끄럼틀이 되었다. 실컷 타고난 뒤에는 미끄럼틀 옆구리의 눈을 파낸 후 겉에다 눈으로 뚜껑을 만들어 살짝 가리면 훌륭한 함정이 된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선심 쓰듯 한번 타보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든 어른이든 영락없이 걸려드는 사람이 꼭 있다. 신나게 눈 미끄럼틀을 타다가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푹 빠지고 마는 것이다. 함정에 빠져도 아무도 역정을 내지 않는다. 누구나에게 즐거운 놀이였다.

이처럼 합쳐 눈을 치우고 서로 즐기다 보면, 다뤄서 서로 말하지 않던 사람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떠들고 있다. 자연이든 사람이든, 눈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든다.

독서. 그리고 나를 만나는 시간

눈이 오면 가장 좋은 것은, 눈을 핑계로 할 일을 미뤄도 된다는 것이다. 방학 숙제나 자잘한 집안 심부름 등 대신 만화책을 쌓아놓고 실컷 읽을 수 있었다. 따뜻한 방바닥에 배를 붙이고 뒹굴뒹굴 하며 책을 읽었다. 순정만화를 읽으며 미래에 찾아올 애절한 첫사랑을 상상하기도 하고, 역사만화를 읽으면서 웅장함을 키우기도 했다.

물론 만화책만 읽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 집은 시골의 가난한 집인데도 책이 많았다. 소설가 지망생인 작은 오빠가 돈만 생기면 책을 사왔는데, 집은 작은 도서관이었다. 때문에 텔레비전보다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 폭설이 내리면 텔레비전이 잘 나오지 않기도 했지만,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읽던 습관 때문에 별로 아쉽지도 않았다.

오빠는 좋은 독서 선생님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 정도 책은 읽어야 해.”

그러면서 건네준 책은 슈바이처의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루신의 《아큐정전》, 로맹 롤랑의 《장 크리스토프》 등이었다. 사실 재미없었다. 존스톤 매컬리의 《해결 조로》, 프랜시스 버넷의 《비밀의 화원》, 《소공녀》 등이 더 재미있었다.

나무들이 겨우내 몸을 움츠리고 있는 듯하지만, 실은 끊임없이 대지로부터 물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봄을 준비한다. 겨울은 그런 계절이다. 눈으로 덮인 대지 아래 수많은 생명체들이 봄을 준비하듯,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이 한 뼘씩 성장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 습관이 제법 몸에 붙었다. 셰익스피어 작품이나 헤밍웨이, 펄벅, 톨스토이 등의 작품들을 찾아 읽었다. 독서일기도 쓰게 되었다. 방학이 끝나면 10권정도 목록이 만들어졌다. 해마다 한 권 한 권 읽은 책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자신감이 생겨났다. 모든 삶에는 이별과 고통이 따른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고 위로도 되었다. 그 덕분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슬픔과 가난으로 가득 차 있던 십대의 시간을 견뎠다.

책 읽는 아이에서 책 읽는 어른으로

나는 책 읽는 어른이 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시기나 그 후 직장에 다니면서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나는 책을 통해 위로와 위안을 얻었다. 《논어》, 《장자》, 《금강경》, 《숫타니파타》와 같은 책들은 의식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無常’은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현실은 압핀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항상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좋다고 해서 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려울 때는 곧 변화가 온다는 위안이 되었고, 좋을 때는 겸손해야 하는 것을 알게 했다. 장자는 또 어떠한가. 장자의 이야기는 현실에 마음이 질 때마다 웅장한 세계로 나를 안내했다. 때로 장자처럼, 때로 공자처럼 현실에서 진 마음을 달래었다. 지금도 나는 꾸준히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만난다.

동화작가가 된 후 살면서 깨달은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거창하지 않아도 순간순간 작은 깨달음과 아름다운 경험들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 아이들이 위로와 위안을 얻는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눈에서 비롯되었다.



김진 동화작가

강원도 강릉 출생. 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어린이책 출판사에서 일했다. 200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우리 동네 마루」가 당선되고 2013년에는 「강물을 거슬러 오른 고래 한 마리」로 제3회 열린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세종대왕을 찾아라(2021), 범 내려온다(2020), 그림을 그리는 신비한 어둠상자(2017), 외뿔 고래의 슬픈 노래(2016) 등 다수가 있다.

1

독서동아리 글마당



마니또

신건우 / 한결



나의
마니또는
편지랑 선물은
줄까?
나한테
잘해줄까?
조금 설렌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편지랑 선물은
주지 않네
편지랑 선물은
언제 주지?

다음엔 꼭 주길.

한알 독서동아리와 만남

석예강 / 한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알 독서동아리를 3번 밖에 참석해 보지 않은 새내기 석예강입니다. 제가 한알 독서동아리를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와 함께 책을 빌리러 간 창원 도서관 어린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알 독서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독서동아리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서 선생님께 신청했습니다.

그때부터 한알 독서동아리라는 즐거운 수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책은 《엄마 감옥을 탈출할 거야》였습니다. 동아리를 하는 첫 날이 다가오자, 엄격한 분위기일 것 같은 생각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였고, 친구들과 열심히 그 책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게시판에 글을 쓰고 퀴즈를 풀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소회의실에서 2팀으로 나누어 진행했고, 마지막에 각자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소감을 말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재미있었습니다. 마치는 시간이 아쉬웠지만 다음 수업을 생각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녹색 인간》이라는 전쟁의 피해자인 강박사의 음모를 이기는 이야기가 담긴 책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로 아빠가 감옥에 있지만 흑등고래 하나만으로 버텨온 소년 도근이의 이야기가 담긴 책으로 토론했습니다. 이 수업 마지막에 선생님이 폭탄선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과 세 번밖에 수업을 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습니다.

독서동아리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더 늘어난서 책 읽기의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한알 독서동아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일상

박시연 / 한알

2020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나는 정말 무섭고 불안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바이러스였고 중국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사망자의 수도 늘어나서 나,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이 걸릴까봐 걱정이 되고 두려웠다.

2021년이 되면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거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감기처럼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21년이 끝나가는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 19바이러스는 나의 일상을 많이 바꾸었다.

첫째, 코로나19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는 학교를 가는 것이 귀찮기도 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어 다시 학교를 가게 되니 학교를 가는게 얼마나 소중한지, 친구들과 만나서 놀 수 있고 선생님과 함께 얼굴을 보며 공부할 수 있는게 얼마나 뜻깊은 시간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둘째,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처음 썼을 때 답답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되었다. 마스크를 써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감기 등 다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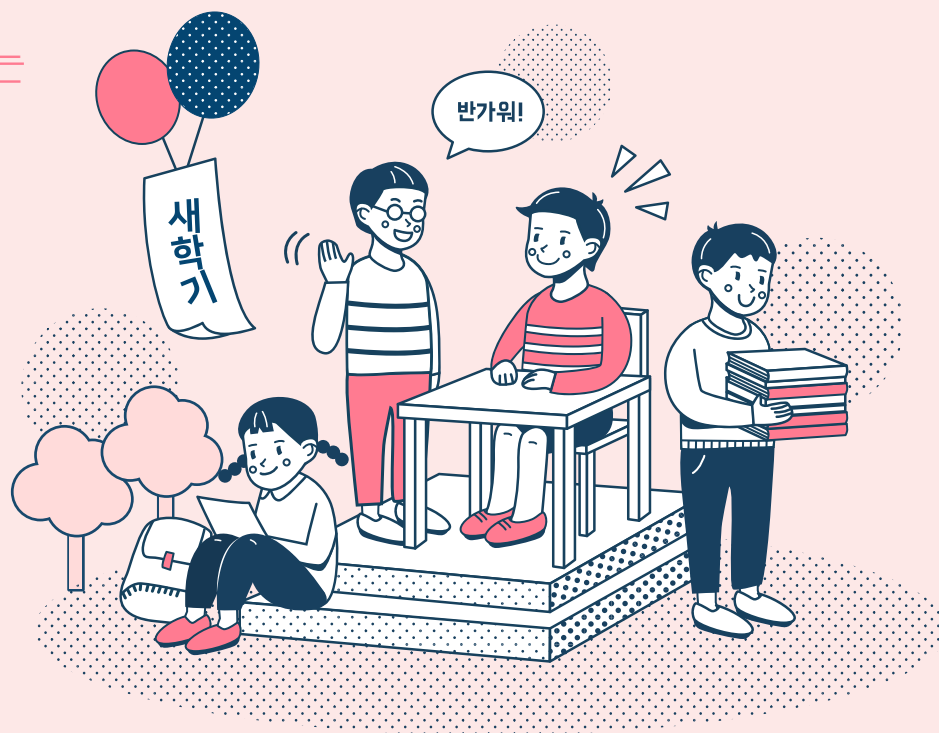
셋째, 여행을 자유롭게 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책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보석집자수, 그림그리기, 지우개 도장파기 등 여러 취미 생활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하늘도 뿌연날이 많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가 멈추면서 맑은 하늘을 더 많이 보게 될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나의 일상이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 선생님과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여행도 많이 다니게 되면 좋겠다. 모두 노력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미덕의 보석

이희수 / 한결 독서동아리 강사



“미덕의 보석 님들 반가워요~”

미덕의 언어로 초등 2, 3학년 독서동아리인 한결 독서동아리 2021년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만남의 모니터를 통해서도 52가지 미덕의 원석을 품고 있는, 소중한 미덕의 광산인 아이들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지요.

3월 첫 그림책은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의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너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너는 바로 너라는 거야. 예전에 너는 아기였고,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은 어린이고, 앞으로 더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건 틀림없어. 하지만 너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너는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너라는 거

야.” 이 말을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통해 꼭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미덕의 언어로 말하는 버추 프로젝트와 질문하며 이야기하는 하브루타의 힘으로 운영되는 한결 독서동아리와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는 모두 미덕 광산이야. 우리 마음속에는 반짝반짝 빛나기를 기다리는 미덕의 원석들이 가득해. 우리가 하는 말, 듣는 소리, 보는 눈,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원석들이 빛나는 보석으로 변하는 거야. 그게 바로 나야.”

평소 인식하지 못했지만 독서모임을 통해 하나씩 자신의 미덕을 찾고 인식하며,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결 독서동아리는 아이들이 깨우는 지성과 인성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것이 책 읽기의 최고의 목표였기에, 그림책 속에서 찾은 미덕을 한달 간 실천하고 만나는 것이 숙제 아닌 숙제였거든요.

4월에 만났던 책은, 김성미 작가의 《인사》였습니다. 여우와 늑대 아저씨가 어색하게 만나 인사를 못해 서로 눈치만 보다가 헤어진 이야기입니다. 질문과 미덕으로 대화를 나누며 인사 속에 있는 미덕을 한달 동안 실천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3, 4월은 신학기라 학급에 낯선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기간임을 반영해 준비했으니, 우리 친구들이 실천하기 딱 좋은 그림책이었습니다. 책 속에서 신학기 낯선 친구에게 먼저 인사 나누기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아이가 5월 독서 모임에 와서 환하게 말합니다. “4월에 **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친구가 되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다른 친구들도 너도나도 실천 경험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친구가 물건이 책상에서 떨어졌을 때 제가 주워주었어요.”

“내가 먼저 인사했어요.”

11월은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터널》이었어요. 만나면 티격태격 싸우는 남매가 관계를 회복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질문 중에서 “여동생과 오빠는 왜 매일 싸웠을까?”라는 질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이들이 책 속에서 스스로 찾은 답은, ‘둘이 너무 달라서 싸웠다’입니다. 동아리 아이들도 집에 있는 동생이나 교실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는데, 달라서 싸웠다는 경험을 나누어 주었어요. 책 속에서도 동생은 책을 좋아하고, 오빠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달라서 친해지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였

어요. 다르지만 미덕의 힘으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책 속에서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함께 터널 속으로 들어갔으며 ‘용기’의 미덕도 찾아내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음소거 버튼을 눌러놓지 않아도 조심성있게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 마음속에 존중의 미덕이 보석처럼 빛나면서 경청으로 연결된 것이지요. 초기에 발표가 어려웠던 친구들도 ‘소신’의 미덕을 빛내며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구요. 지난 한달 동안 실천한 것을 나누며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은 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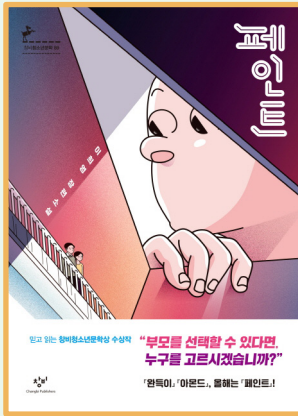
좋은 그림책,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질문과 미덕을 통해 지난 1년을 함께 성장해온 아이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이들입니다. 제게는 세상에 가장 빛나는 미덕의 보석을 볼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지요.

랜선 속에서도 아이들은 멋지게 소통하며 호흡해 주었어요. 지난 일년 동안 아이들이 빛내준 미덕, 앞으로도 더욱 빛날 아이들의 미덕이, 가슴 속에서 별처럼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NC 센터 과연 올바른가?

『페인트』를 읽고

민무겸 / 글발



나름 긴 초등학교 6년 시절을 끝내고 글발 독서동아리를 참여하며 중학생이 되었다는 실감을 하게 되었다. 중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읽는 책이었고, ‘페인트’라는 제목부터 독특해 나름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읽었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NC 센터에서 살아온 주인공 ‘제누 301’.

NC 센터의 모든 아이들은 20살이 되기 전에 부모 면접을 통해 부모를 만나 NC 센터를 떠나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이렇게 부모를 만난 아이들의 과거는 모두 지워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하지만 부모를 찾지 못한 채 20살이 된 아이들은 센터를 나와야 함은 물론 사회에서도 NC 센터 출신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센터에서 아이들을 통솔하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가디언’(줄여서

‘가디’)이라고 불리는 센터장인 ‘가디 박’과 남자 아이들이 생활하는 센터B에서 유일한 여성 ‘가디 최’, 그리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아키 505’와 함께 지내면서 제누는 센터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고민이 많다.

NC 센터의 아이들은 ‘부모 면접’(parent’s interview)을 영어발음이 비슷해 ‘페인트’라는 은어로 부른다.

17살이 된 제누는 빨리 부모를 찾아 NC 센터를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제누는 내키지 않지만 ‘예비 부모(프리 포스트)’들과 부모 면접을 보게 된다. 몇 번의 거절 후, 제누의 마음에 든 프리 포스터를 만난다. 삼십 대 초반의 젊은 부부로 여자는 ‘서하나’, 남자는 ‘이해오름’이었다. 다른 프리 포스터들과 다르게 자유분방하고 꾸밈없이 솔직한 그들의 모습에 제누는 점점 더 끌리기 시작한다. 하나는 한 퍼블리싱 회사에서 에디터로, 해오름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일 년 전에 일을 그만두고 현재 하나는 글을 쓰고 있고 해오름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한다. 1차 면접이 끝나고 가디 박과 최는 불평불만을 하지만 제누는 2차 면접을 잡아달라고 부탁한다. 여태까지 1차 면접 까지만 하고 점수도 10점대로 평가하던 제누가 85점이라고 말하면서 2차 면접을 잡아달라고 하자 가디들은 당황하지만 제누는 그런 그들을 뒤로 하고 인터뷰 룸을 유유히 빠져 나온다. 과연 제누는 그들을 부모로 받아 들여서 NC 센터를 떠날 수 있을까?

작중 초반부에 ‘설립 당시부터 NC 센터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출생률을 높이지 않으면 국가의 존속마저 위태로워진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쪽도 늘었다’ 라고 요약되어 있다. 나의 의견은 찬성 쪽에 동의한다. 물론 반대쪽의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출생률이 이대로 점점 낮아지면 국가의 존속이 위태로워진다. 현대 사회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출산 문제를 포함하여 고령화 사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NC 센터 같은 시설을 설립하여 아이들을 양육하여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인은 열두 명을 살해했다. 십여 년 전,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일이었다. 라스트 센터에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13살 때 나는 우연히 당시의 뉴스 영상을 보았다.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인터뷰. 그 영상은 전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모자이크 처리조차 안 된 희대의 살인자의 얼굴. 그는 자신을 낳고 버린 부모를 원망하면서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했다고 털어놓았다. 잠

하지 않았다면 멈추지 않았을 거라는 끔찍한 고백도 했다. 그의 말이 언론을 통해 퍼져 나가면서 순식간에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는 NC 센터 출신이었던 것이다.’ 라는 내용이 묘사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반대쪽의 의견이 거세지면서 반대쪽의 비율이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찬성한다. 부모에게 버려져서 갈 곳 없이 떠돌다가 끔찍하게 죽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아동 학대가 이슈가 되었다. 그만큼 아동 학대 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그 가정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현실에서 이런 NC 센터가 설립된다면 아이들이 좋은 양부모들을 만나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일반 가정의 아이들처럼 아무런 차별 없이 자신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독서토론으로 알게 된 즐거움

김나경 / 책수다

나는 평소에 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내 방의 벽 한 면이 전부 책으로 가득 차 있을 만큼 주변에 많은 책이 있었고 쉽게 책을 접할 수 있었지만, 그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방학 숙제로 독후감을 썼고, 엄마와 함께 짠 생활 계획표에도 매일 30분씩 독서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읽은 적은 없었고 독후감을 쓰는 것은 내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심지어 독후감에 책에 대한 내 생각이나 감상을 쓰기보다는 줄거리만 간추려 썼다. 그렇게 중학교에 가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책을 거의 읽지 않았다. 교과서에 실린 지문이라서, 또는 수행평가를 위해 나의 진로와 관련된 추천 도서를 읽은 것을 제외하면 책을 읽은 적이 없는 것 같다.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지금이라도 독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책 읽기를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니 주변에서는 모두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 고등학교에서 두각을 드러낸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책을 많이 읽지 않은 것이 후회되고, 막막한 기분도 들었다. 고등학교에 적응도 하기 전에 이미 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적어도 2학년이 돼

서 더 바빠지기 전에 책을 읽어두자고 다짐했고 재미있게 책을 읽을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 그때 친구가 함께 독서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평소에 내 생각을 말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긴 고민 없이 독서토론에 참여했다.

첫 독서토론 시간에는 책을 전부 읽어 가지 못했다. 책이 별로 두껍지 않아서 금방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국 앞부분만 조금 읽고 독서토론을 하게 되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긴장된 마음이 한결 진정되었고, 내 생각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첫 독서토론을 마치고 집에 가니 엄마가 어땠는지 물으셨고, 나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고,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정말 처음으로 독서를 하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했다. 또, 혼자 책을 읽었다면 그 내용에 대한 내 생각만 정리하고 넘어갔을 텐데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니 여러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내 생각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다



양한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과 관련된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의 배경지식을 쌓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독서토론을 하는 책의 종류는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책 중에서 단 한 권의 책도 지루하다거나 재미없지 않았다. 항상 독서토론을 하는 날이 기다려졌고, 친구들과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다. 다만,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드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다. 책을 읽고 질문을 직접 만들어 그에 관해 생각해보는 것은 독서토론에서 처음 해보는 것이라 그런지 초반에는 질문이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고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책을 읽을 때 책에 인덱스를 붙이고 메모를 하며 읽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독서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독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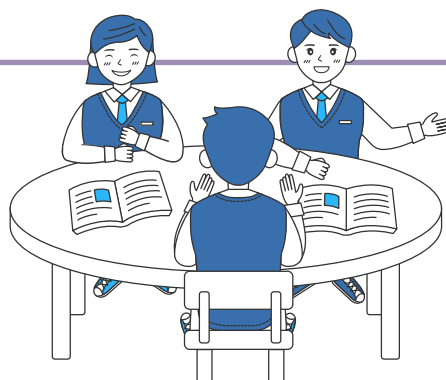
독서토론은 나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고 또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우선 책을 정말 자주 읽게 되었다. 예전에는 남는 시간이 있으면 핸드폰을 보았는데 요즘에는 틈틈이 책을 읽는다.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

으면 학교 숙제나 학원 숙제 때문에 시간이 잘 나지 않는데, 독서토론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책을 읽을 시간을 내는 편이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으니 느리지만, 책을 읽어나가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책을 읽고 나면 책에 관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내가 작가가 되어보기도 하고,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면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독서토론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던, 읽지 않았을 책을 읽어보고, 책의 내용이 조금 어려워도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이라는 생각에 책을 차분하게 끝까지 읽을 용기도 생기는 것 같다.

나는 독서토론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에 관해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법, 나와는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법,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예전에 나에게 독서란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었다면, 요즘 나에게 독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독서와 독서토론에 대해

조수현 / 책수다



어릴 때부터 책은 항상 나의 친구였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아낌없이 책을 사주셨고 책장은 나의 책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 그 결과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마치면 학교 옆 도서관으로 가서 좋아하는 아동 잡지를 읽고 학습 만화부터 소설까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1~2권 골라 읽은 후 집에 가곤 했다. 읽고 싶었지만 못 읽은 책은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도서관에 가 책을 빌려온 후 집에서 읽었다. 또한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책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사는 다 참여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읽은 책과 경험이 현재 나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며 시험공부를 하고 학교 과제를 한다는 이유로 책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중학교 3학년 말에 고등학교 국어 공부를 하며 독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설 몇 권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등 책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던 중 독서동아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독서토론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다.

독서토론에서는 인상 깊은 구절과 그 이유 발표하기, 그 책에 관해 질문을 만들고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 생각해 보기, 책 내용의 배경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 중 책 내용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책을 읽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다시 읽으니 내용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고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책에 관해 질문 말고 답을 하는 활동은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질문을 만드는 것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어떤 질문을 만들까라는 생각

을 하며 책을 읽었다. 그 결과 내용을 더 꼼꼼히 곱씹으면서 읽게 되었고 질문도 쉽게 만들 수 있었다. 질문을 만드는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와 자신이 만든 질문을 공유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다. 다른 친구가 만든 질문을 들으며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리며 책 내용을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었다. 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독서토론을 하며 자연스레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게 되었고 독서동아리에 필요한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에 가면서 책을 더 많이 접하였다. 그래서 한 권이라도 책을 더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원래는 책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은 후 바로 다음 책을 읽었는데 이제는 책을 읽을 때 인상 깊은 구절을 표시하고 책을 더 꼼꼼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는 등 단순히 책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 나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독서토론은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독서의 중요성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었다. 또한 자연스레 책을 접할 기회가 늘며 책과 더 가까워졌고 책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주었다. 이제 책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소중한 벗이다.



독서동아리

이지혜 / 넝쿨



십오 년이 넘도록 이어온 독서동아리가 있다. 젊어서 조금 더 세상을 모르던 시절에 우연히 참여하게 된 독서동아리는 나한테 놀이터였고 선생님이었다. 타향으로 이사 와서 적적하던 차에 여러 사람과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독서동아리 회원들은 지적이고 열정적이었다. 나도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 행사 치르느라 바쁜 시기에는 먹고 자는 시간을 줄여서 책을 읽었다. 다른 연관된 자료들까지 조사해가는 날에는 마치 시험을 치는 학생으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나누었고 각각의 경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보냈다. 어떤 편견도 없이 서로를 존중해주었다.

봄·가을에는 정기적으로 한 차례씩 나들이도 다녔다. 봄꽃 향과 단풍색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면 다 함께 모여서 꿀맛 같은 간식을 먹은 후에 그즈음 감성에 딱 들어맞는 시를 낭송하기도 했었다.

이름난 예술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차츰 그 속에 배어있는 사상이 우리의 삶에 겹쳤다. 콩나물시루에 물 주듯이, 읽은 내용이 다 빠져나가고 헛수고인가 싶었지만 조금씩 마음의 눈은 커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는 개인 사정으로 모임을 떠나고 새로운 얼굴이 그 빈 자리를 채웠다. 책은 세상을 폭넓게 보여주었고 더하여 회원들이 품고 있던 다양한 인생철학들도 내게 가르침을 주었다.

50대 후반이 되니 그동안 읽었던 책 제목들이 슬슬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노화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 체력이 약해질수록 집중력과 시력이 떨어진다. 결국 나보다 더 먼저 모임을 시작했던 연배가 높은 언니들이 떠나가고 있다. 기동처럼 든든하게 받치고 있던 사람들이 떠남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여러 번 망설였을까!

녹내장이 생겨서 앞으로 독서동아리에 참석 못 한다는 왕 언니는 내게 젊을 때 책 많이 읽고 즐기라고 덕담을 남겼다. 나도 널모레면 예순인데 모임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한 젊은 사람으로 대우받는다. 요즘 내 현실은 책장을 덮자마자 읽은 책 내용이 가물가물하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조만간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머리를 친다. 눈 건강에 좋다는 당근과 블루베리를 먹어야지.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 고민도 해본다.

아무리 막아도 언젠가는 나도 독서동아리에 더 이상 못 나간다고 알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읽기가 힘들어지고, 말이 느려지고, 생각이 중구난방 판 길로 빠지는 날이리라. 살다 보면 예상하였음에도 막상 닦혔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내게는 독서동아리에 가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그런 일 중의 하나이다.

만약 책을 읽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 이야기로 들어갈 것이다.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싶다. 내 생각이 그러하듯, 독서동아리를 떠나는 이들이 토론 끝난 뒤풀이 자리라도 참석해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면 좋겠다. 떠난 그 자리를 잊지 말고 다시 찾아오길 기대한다.

나전칠기

김영옥 / 한마음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이웃 사람이 이사하면서 가져 가지 못한 가구가 있으니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면 좋겠다고 하여 지인 몇 사람과 구경을 갔다.

이미 이사를 가버린 빈집에는 자개장이라 불리는 나전칠기 몇 점이 남아있었다. 열두 자 정도 크기의 장롱과 여덟 자 정도 크기의 의걸이 한 쌍, 그리고 문갑 한 쌍이 오래된 주택의 안방과 건넌방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방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화려한 자개의 빛깔에 잠시 숨이 멎는 듯했다.

창문 사이로 비껴드는 늦은 오후의 은은한 햇살은 나전칠기의 문양 위에 영롱한 무지개를 그려냈다. 보는 이의 움직임에 따라 출렁거리는 빛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워 일행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검은 옷칠 바탕에 가늘고 섬세하게 조각된 소나무 잎새들 아래에는 우아한 자태의 학들이 날개를 활짝 펴며 날고 있었다. 고목 아래 언덕에는 순한 눈망울의 사슴 가족들이 한가롭게 거닐고, 물가에는 거북이 한 쌍과 원앙 한 쌍, 호수에는 잉어 한 쌍이 수면 위를 날렵하게 뛰어오르는 순간이며 강가의 정자에서 평화롭게 낚시질하는 어부의 유유자적하는 무릉도원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십장생들은 각각의 기법으로 생동감 넘치게 배치되었고 내부는 투

명하면서도 붉은 색상의 옷칠로 장식되어 있었다. 반백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처음 자리 잡은 그대로 있던 터라 보관상태도 매우 좋았다. 문외한인 우리들의 눈에도 기품이 넘치는 이 가구가 범상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나전칠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가구가 아니었다. 재료도 물론 귀하거니와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극한 작업으로 소량 제작되어 특별한 계층에게만 공급되었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공방은 전에 없이 성황을 이루었다. 나전칠기로 유명한 통영에서도 수소문해서 찾아낸 장인이 공들여 만든 이 가구는 주인의 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자녀들이 태어나 자라고 문양의 십장생들처럼 각자의 짝을 찾아 자신들과 닮은 아이들을 낳았다. 세월이 흐르며 집도 사람도 늙어갔지만, 나전칠기의 빛은 조금도 바래지지 않았다.

심해의 조개와 고산 옷나무의 정기가 화합하여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가족이 화합한다는 전설의 가구이며, 수많은 단계를 지나야 비로소 발광하는 인고의 나전칠기에는 작품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장인들의 정기 어린 눈빛이 서렸고, 전복과 조개의 빛과 무늬를 살려가며 끊임질과 주름질로 조각을 이어 붙이는 그들의 땀방울도 스며든 것처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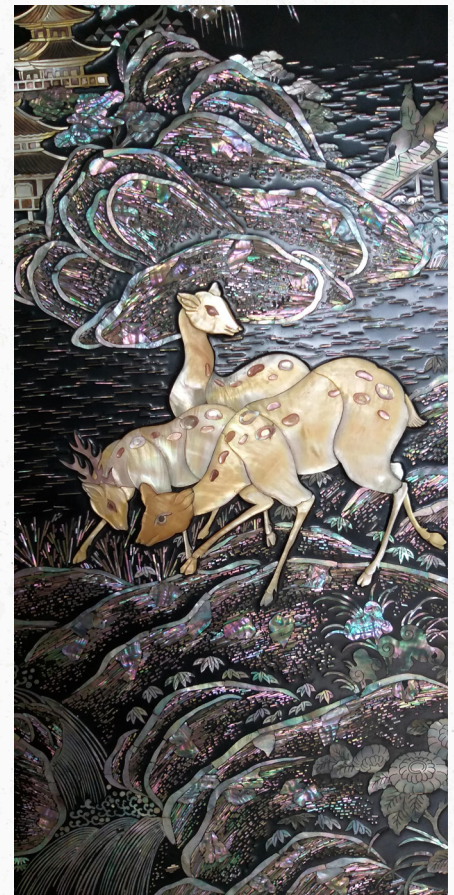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는 가구 이상의 의미가 필요 없는 똑같은 모양의 붙박이를 생산해 냈고 하나밖에 없는 가구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붙박이 가구 앞으로 사람만 옮겨 다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몇 개의 계단마저 오르내리는 게 힘에 부치는 나이가 되어버린 주인은 이사하기로 했으나 오로지 실용적으로만 공간을 사용하는 아파트에 이 사랑스러운 가구가 들어앉을 자리가 없었다. 동네 아낙들의 부러움 가득한 눈길이 머물던, 빛나던 시절을 뒤로한 채 이제 폐기될 처지의 가구를 생각하자니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오지랖을 넓혀가며 알음알음 수소문 끝에 나전칠기를 모아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사람과 선이 닿았다.

가구를 실어 보내주면 박물관을 지어서 영구히 보관하겠노라고 했다.

통영에서 마산으로 반백 년을 보내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득 채운 우리의 자개장롱은 전라도 끝자락의 아름다운 고장 목포로 정착하기 위해 떠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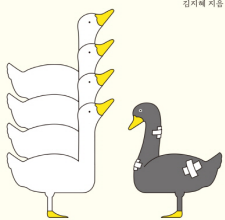
나전칠기!! 그 아름다운 빛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지음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고

유영숙 / 섬돌

누구나 열심히 배우고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며, 차별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편향된 능력주의가 공정한 규칙이 되려면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도리어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차별을 구분하여야 한다. 우리의 능력을 판단하는 많은 기준이 어찌면 누군가에겐 불리하게 편향되어 있지 않은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더 불공정할 수 있는 건 자신이 편향되지 않다고 착각하는 능력주의의 역설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평가에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고 사람의 능력은 한 가지가 아니며 또한 전부도 아니다.

다양한 문화의 상호존중과 공존을 강조하는 사상인 다문화주의가 어느새 한국 사회에서는 진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때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상처를 주는 잔인한 의미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과 누군가에게 다문화는 낙인이고 차별과 배제의 용어가 되었다.

옛날 노예가 존재한 이유는 그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오늘날에는 한국인이 피하는 직종에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형태의 이주노동자들이 현대판 노예로 쓰이고 있다. 이렇듯 한 영토 안에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집단이 있고,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가 없으며, 다르게 말해 외국인은 국민보다 덜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의가 미치는 범위 안에 사는 사람 중 일부가 배제되어 있고, 같은 영토 안에 권리가 적거나 없는 계층이 존재하는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정이라고 깨달으며 윤리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세상은 공명정대하고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한 만큼 열매를 맺는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다.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공명정대한 세상 대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는 사라질 것이며,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당할 위기가 누구에게나 올 것이라는 걸 알아야 정확히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도 깨달을 것이다.

사람들은 ‘중립성’과 ‘평등’을 말하기 위해 ‘차이’를 이야기한다. 소수자가 차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억압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정치적 주체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쟁취하려는 의도이다.

이제는 불평등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고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불편함을 견딜 것인가? 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가 차별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좋겠다는 희망과 세상의 불평등과 차별을 직시할 용기를 가지고, 내가 보지 못한 차별을 누군가 지적했을 때 방어하고 부인하기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

윤영숙 / 소나기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제법 차가워진 공기를 머금은 바람 탓에 위풍당당 큰 덩치로 싱싱한 초록만을 뽐내던 나무는, 이제 그만 울긋불긋 제 빛깔을 찾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눈부신 찬란함을 뽐내기에 여념이 없는 나무.

우리의 인생도 나무의 일생과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위풍당당 꿈 많은 성장을 하고 수많은 시련에 고뇌를 반복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에 웃음 짓게 되는 우리의 인생. 싱싱했던 초록의 기억을 간직한 채 모진 비바람을 잘 견뎌내 준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단풍을 갖게 되는 나무의 일생과 너무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싱싱했던 초록의 순간을 막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젠 저의 진정한 색깔을 찾아 더욱 아름답고 찬란해질 준비를 해야 할 즈음이겠죠. 찬란해질 준비!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찬란해질 준비'란 과연 어

떤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결론은 그저 지금 하고 있는 일, 관심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해 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틈틈이 정리하는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비우는 삶은 내가 가진 많은 물건들 중 내게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하게 해 주었습니다.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 [신박한 정리]에서 신애라는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나의 집을 정리해줄 사람이 고생스럽지 않도록 평소에 나의 집을 정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백배 공감하며 용기 내어 시작한 작은 정리들은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도 훌훌 날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법정스님은 《무소유》에서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고,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일 조금씩 제 주변을 정리하며 제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제 색깔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단풍, 찬란한 단풍이고 싶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시선을 끄는 광고 한편을 보았습니다. 광고 속 젊은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무료 나눔 자켓을 받으러 갔는데 그 옷을 건네는 사람은 동년배가 아닌 당당하고 아름다운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세련된 모습에 반했지만 정리, 나눔, 건기를 늘 실천한다는 그녀의 오래되고 소박한 라이프 스타일과 그녀가 살아온 7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더욱 아름다워 보이게 했습니다.

헤민 스님의 《따뜻한 응원》 중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가을 단풍은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도 그 자체가 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볼수록 들을수록 매력적인 말입니다. 나는 과연 나 자체로 아름다운가? 아직은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겠지요. 세월의 흐름만큼 쉼 없이 쌓인 많은 일들이 저를 더욱 아름다운 단풍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 단풍을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창원도서관 독서동아리 발자취

어린이 독서동아리

매월 세 번째 토요일 전문 강사의 지도로 하브루타를 통한 독서토론

한결 2017년 한알(A) 창립. 2021년 한결 독서동아리로 동아리명 변경
초등학교 2~3학년 15명 내외로 구성

한알 1993년 창립. 초등학교 4~6학년 15명 내외로 구성

청소년 독서동아리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두 번째 일요일 전문 강사의 지도로 하브루타를 통한 독서토론

글밭 1994년 창립. 중학교 1~3학년 20명 내외로 구성

책수다 2019년 'Dream? 이루어드림!' 창립.
2020년 책수다 독서동아리로 동아리명 변경
고등학교 1~2학년 10명 내외로 구성

성인 독서동아리

넝쿨 1986년 창립. 40~60대 회원 15명 내외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 다양한 주제 도서 토론

한마음 1997년 창립. 30~50대 회원 15명 내외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다양한 주제 도서 토론

섬돌(아간) 2004년 창립. 50대 일반인 15명 내외가 매월 두 번째 수요일 다양한 주제 도서 토론

소나기 2014년 창립. 30~40대 회원 15명 내외가 매월 세 번째 화요일 부모 교육 관련 도서 토론

그림책에게 배웠어 2019년 창립. 성인 15명 내외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 그림책 및 동화책 집중 연구·토론

그림책에게 배웠어 독서동아리는 **2022년부터 책숲독서동아리**로 재탄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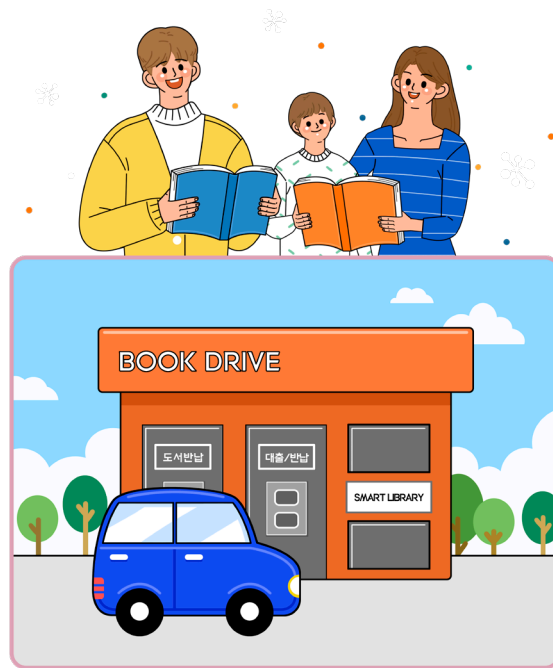


참여 글마당



소중한 우리 가족에게 도서관은

박정선



도서관이라는 곳은 학창시절에 공부하러 가던 곳, 그 이후로는 바쁜 생활 속에서 잊혀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되면서부터 늘 한결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는데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돌아오는 답은 역시나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굳은 결심으로 도서관으로 향했던 것을 정말 잘했다고 하고 싶습니다.

창원도서관을 첫 방문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벚꽃을 보러 교육 단지를 여러 해 다니면서 보았던 본관 건물이 당연히 도서관이겠거니 하며 갔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헛웃음을 지으며 별관으로 향했던 날, 이렇게 오래도록 도서관에 발도장 찍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유아자료실에 엄마와 같이 오는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도서관에서 저렇게 놀 수 있는 아이들은 정말 행운아구나 싶어요. 자연스럽게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복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나 줄곧 집안에만 있어야 했던 시절에도 도서관은 집안에 갇힌 우리 가족에게 계속된 재미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물론 도서관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문을 닫아야 했기에 도서관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은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은 매번 새로운 책을 원했거든요.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라는 혁신적

인 방법으로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었고 어쩌면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더욱 책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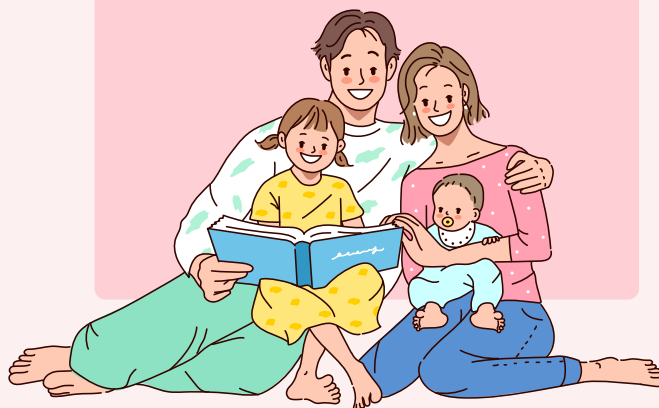
그랬기에 얼마 전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도서관을 드나들면서도 ‘책 읽는 가족’이라는 사업 자체를 전혀 몰랐기에 놀랐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가족이 선정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우리 가족도 꾸준히 책을 빌려 읽기는 했지만 도서관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을 떠올려 보니 정말 다들 열심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책 읽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가족들을 도서관으로 이끌었던 그 발걸음을 도서관에서도 인정해주는구나 싶어 매우 뿌듯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아이들은 책을 즐겨 읽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고르는데 그렇게 고른 책을 아이가 재미있다고 손에서 놓지 않을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아이들 챙기기가 어려운데 그 빈자리를 도서관의 수많은 좋은 책들이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으며 더 건강하게 자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이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우리 가족과 같은 이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온 선물

이은지



2020년, 저희 집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항상 아기 같았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대견스러우면서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챙겨야 할 것이 많다고 들어 다니던 직장도 휴직하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와 함께 전시회 관람, 박물관 견학을 가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의 시각을 넓혀주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되며 당초에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무산이 되었고, 심지어 초등학교를 입학하였으나 몇 달 동안 학교를 가보지 못하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우리 가족에게 갈 수 있는 곳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매주 카트를 끌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독서 대출증을 만들어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대출했습니다. ‘두 배로 즐겁데이’ 날에는 80권까지 대출이 가능해 아이와 함께 싱글벙글 웃으며 책을 마음껏 카트에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틈틈이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 저와 아이는 책의 바다에 폭 빠졌습니다. 재미있는 책도 있는 반면, 어렵고 흥미가 떨어지는 책도 물론 있었지만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은 확실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다음 책이 궁금해 찾아 읽

으며 문학, 사회, 과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접하며 책에 대한 매력에 빠졌습니다. 아이도 그림책, 이야기책, 학습만화, 영어 동화책 등 빌려온 책을 거실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서로 문제도 내면서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아이와 마음대로 여행 갈 수 없고 문화체험도 불가능했지만 책을 통해 여러 나라와 지역의 풍습과 문화를 접하고 간접적인 경험을 하여 삶의 깊이는 조금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저와 큰 아이가 도서관을 즐겨 가고 책을 가까이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 아빠와 작은 아이도 독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지만 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는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적응하기 위해 독서를 하며 식견을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며 완독했을 때의 뿌듯함이 좋고 도서관에 갔을 때의 모든 책이 내 것인 양 마음이 풍부해지고 편해지는 기분이 좋아 시간이 되는 한 저희 가족은 도서관을 제 집 드나들 듯이 다녔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보물 찾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도서관에 놀러가며 책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삶의 공간, 도서관

김경옥
평생학습프로그램 참가자

새로운 도시에 가면 도서관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가족의 습관 중 하나이다. 40대 초반인 1998년도 부산에서 살게 되었을 때는 남구도서관을 애용했었다. 집을 나서서 산비탈 고개를 하나 넘는 길을 어린 삼 형제를 데리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도서관에 들르는 것이 중요한 일과였다.

어느 해인가 개인적인 일로 극동방송에 갔다가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들렀던 곳이 창원도서관이다. 벚꽃이 만개한 봄의 향취와 함께 도서관 방문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어느덧 오랜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창원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2009년 12월에 창원에 이사해보니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 공공도서관이 많아서 행복했다. 집 근처 평생교육관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서 의창도서관, 창원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명곡도서관 등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도서관들이 있다.

그리고 보니 살면서 우리 가족은 집을 고르는 원칙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학교가 가까우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교회가 가까워 다니기 편리하고, 세 번째는 도서관이 근처에 있었으면 했다. 아들 삼 형제를 키우면서 늘 도서관을 놀이터 삼아 지낸 것이 많은 추억이 되었다. 어르신들의 도움 없이 육아를 하면서도 그림책을 많이 빌려다 쌓아놓고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다. 어느 날 가족의 숫자대로 많은 책을 대출하는 나를 보고 다른 엄마가 부러운 눈치로 보고 있었다. 책을 빌리는 데는 가족의 숫자가 힘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격려해 주었던 적도 있었다.

어느덧 30대에 들어선 아들들은 도서관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종종 나눈다. 그러다가 한동안 손녀를 데리고 도서관을 다니다가 그 손녀마저 10대가 되어 스스로 도서관엘 다닌다. 정작 60대가 되니 나 자신만을 위해서 도서관을 활용한다. 도자

기 수업을 비롯해서 자서전쓰기, 문인화 수업 등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행복하다. 수업에 참여하는 김에 읽고 싶은 책들도 빌려온다. 창원도서관은 위치가 맘에 든다. 교육단지 안에 있고 산 밑이라서 공기가 우선 다르다. 지금은 공사 중이라 도서관 별관 앞의 널쿨로 이뤄진 멋진 장소가 없어져 아쉽지만 이곳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며 숲의 향기 맡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꿩들도 날아와 먹이를 먹는 장면도 여러 번 보았다.

2021년 6월에 시작된 자서전 수업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지난 60여 년의 삶을 글로 정리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더 많은 수강생이 있었는데 중도에 탈락하고 12명이 끝까지 남아 자서전을 써냈다. 자기가 쓴 글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눈물을 쏟았다. 12명의 글을 일부 합하여 출판한 예쁜 책을 손에 받아드니 기쁘고 뿌듯했다. 출판 기념회에는 우리 셋째 아들이 참석해서 꽃도 한 아름 안겨주고 사진도 찍어주었다. 우리는 앉아서 글만 쓴 것이 아니라 영덕에 있는 블루로드와 고려시대 정치가이며 철학자인 묵은이색기념관도 방문했다. 가르쳐주시고 여행까지 시켜주시니 행복하고 감사했다. 괴시리 마을도 돌아보았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문인화 수업도 수강하고 있다. 먹으로 난을 치고 사군자를 그리는 것에 관심은 있었으나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말이다.

나는 도서관이야말로 우리 삶의 중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손녀를 기르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으니 말이다. 오늘도 분주하게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수고하시는 사서 선생님들과 도서관 직원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인생에 색을 입혀준 자서전 쓰기

황홍길

길 위의 인문학 참가자



가을바람이 모과나무를 타고 살랑거리며 바닥을 스치고 지나간다. 흔들리는 나뭇가지 따라 누런 잎사귀들은 가냘프게 내려와 풀밭을 감싼다. 그 밑으로 얼마 전 엄궁 꽃시장에서 산 작은 꽃이 공원 소나무 주변을 수놓았다. 얼마나 그 색깔이 곱고 밝고 선명한지 작은 풀밭에 불을 밝혀준다. 밝은 광채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를 몇 해 전에 본 적이 있다. 붉은 노을이 저물어가는 저녁, 한 배우가 바다 해변을 걷는데 노래 'I have a dream' 이 나오는 장면은 나의 가슴을 은은하게 울려주었다.

석양이 저물어가는 그때의 맑은 노래가 더욱 청량감이 있게 분위기를 풀어 놓은 그 입체감이란, 최상의 빛깔을 품어 놓았던 것이며 가슴을 감동적으로 타오르게 하였다.

이번 창원도서관 자서전 쓰기는 나의 인생을 환상의 색채로 뒤덮어 주었다. 기획에서부터 출판기념회까지 완벽하였다. 공부하는 우리에게 푸른 마당을 깔아 주었다. 삶의 깊이를 다지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추슬러 보기도 하였다. 글을 쓰러 오는 사람은 생활의 일터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었다. 교사, 공무원, 주부 등 연령층은 40대에서 70대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하였다. 그러다가 수업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자 익숙해지고 동질감이 생겼다. 수강

생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수업의 열기도 쌓여 갔다.

수업 막바지에 들어설 때 영덕 괴시리 마을과 블루로드를 탐방했다. 누렇게 벗짚으로 쌓아 올린 초가집이 마음을 은은하게 하였으며 전통 마당에 치솟은 나무는 정감을 불러 일으켜 주었다. 그곳을 둘러본 후 각자 준비한 음식으로 점심을 먹은 뒤 블루로드로 향하였다. 해변가의 길은 멋지게 꾸며져 있었다. 글을 쓰며 맺혔던 피로감과 부담감을 날려 버리며 개운해졌다. 그날은 안식과 재충전을 얻은 나들이였다. 해변가 언덕 기슭에는 야생화들이 맑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 우리는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계속해서 글쓰기 연마를 하기 위한 문학 동호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비록 프로그램은 끝이 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다. 수업의 모든 과정에서 소중한 자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신 도서관 관장님과 과장님, 직원들, 실무를 맡은 김다정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 가지 실타래를 풀어주면서 삶의 받침대를 세워주며 푸근하게 채워준 자서전 쓰기 마당은 우리의 삶을 도약시키며 창조적 동산을 만들어 주었다. 나의 인생에 따스한 색채를 입혀주며 푸른 마당을 열어주었고, 넉넉한 언덕으로 안내하여 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나만 몰랐던 도서관

김슬기



일자리를 찾는 어느 날 창원도서관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지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한 경력이 없으면 떨어질까 불안했는데 다행히 창원도서관 단시간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격하고 나서 일하는 날까지 도서관 업무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 호기심이 과연 저를 어떤 곳으로 안내할까요?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기 전, 저에게 도서관은 다양한 책과 자료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책 대출과 반납, 책 꽃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이용자 응대와 전산 프로그램 사용, 간략한 도서관 안내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도서관은 생각보다 많은 영화 상영, 인형극, 필라테스, 기타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최근에 읽은 양지윤의 <<사서의 일>>에서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이 벌어지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문장을 읽고 도서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인상이 깊었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요즘, 이용자들은 여전히 도서관에 방문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도서관에 와서 책을 대출하고, 프로그램 수업도 들었습니다. 마스크에 가려진 도서관 이용자의 눈은 설렘과 즐거움

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한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 우울했는데, 이용자들을 보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존서고에 내려갈 책들을 수납대에 넣고, 서고 띠지를 붙인 다음 태깅한 후, 보존서고로 끌고 가서 이 책들을 꽃는 일도 인상 깊었습니다. 때로는 서가에 책들을 꽃다가 서가 한 줄에 다 끼워 넣지 못할 때 한숨이 저절로 나왔지만요. 일하던 도중 쉴 때 동료와 이동식 미니 계단을 마주하고 앉은 후, 맛집, 가고 싶은 곳, 재밌는 드라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혼자서 이 일을 했다면 너무 힘들어서 바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료가 있었기에 이 많은 책을 보존서고 서가에 다 꽃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도 어느새 제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벚꽃으로 물든 봄, 짙은 여름과 가을이 무르익어 겨울까지 항상 부족한 저에게 잘 대해주셨고 모르는 게 있으면 친절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창원도서관 관내 정보와 관련하여 잘 물렸을 때가 엇그제 같았는데, 계절이 변하듯 창원도서관 여러 직원과 동료 덕분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육통으로 시작된 사서 실습

김영웅 / 창원문성대학교



내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사서 실습의 마지막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방학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날 일도 없어서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던 내가 도서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것들을 새로 배운다고 생각하니 무섭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였다. 실습하는 며칠 동안은 모르는 게 많아 당황도 많이 하고 버벅거렸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

실습 첫날에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방학동안 너무 오래 집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움직여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한 근육통에 걸렸다. 도서관 실습을 하다가 첫날부터 근육통에 걸렸다는 게 어디 가서 말하기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 스스로는 열심히 배우려고 하다가 그런 거니까 그냥 배움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분명 강의 시간에 들은 건데 사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면서 “강의 시간에 들어본 거죠?” 라고 하셨을 때 “들어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많았던 것 같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실습 3주차 동안 스스로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뭐든 시키면 잘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걸 느꼈고 실습 동안 배우는 것이 사서 선생님들 업무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니 사서직에 대한 진로고민도 해보았다.

그래도 실습하는 동안 배우는 즐거움도 있었고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느낌도 받았다. 소소한 일이지만 처음으로 이용자분들의 대출, 반납을 도와주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다.

솔직히 요즘에는 책 읽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폭염주의보가 있는 날에도, 호우주의보가 있었던 날에도 무더위와 폭우를 뚫고 도서관에 오시는 이용자분들, 분류 기호를 알아 오셔서 스스로 책을 찾으시는 이용자분들을 보니 신기하고 괜히 기분도 좋았다.

마지막으로 실수도 많고 당황도 많이 했던 나지만 잘 격려해 주시고 알려주신 사서 선생님들에게 이 글을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 나중에는 꼭 웃는 얼굴로 창원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새로운 도전, 사서 실습

박서정 / 신라대학교

2021년 5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도서관에 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차례 밀린 실습이기 때문에 긴장되면서, 학교 수업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을 몸소 실천해보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설렘이었습니다.

첫날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늘 다니던 도서관이지만 실습생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도서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알게 되었고 한 달 동안 각 부서별로 실습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료개발과 수서업무를 배울 때는 수많은 도서를 기준에 맞춰 다양한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도서를 선정하는 것과 도서관의 각 자료실에 배치할 자료들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며 이용자로 도서관을 이용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참관하게 되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서 배우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며 뿌듯함과 도서관의 좋은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자료실에서 자료실의

업무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배울 때에는 직접 이용자분들을 마주하면서 업무를 배우는 것이 긴장되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실습을 하는 동안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느꼈지만 사서 실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사서가 하는 다양한 업무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서는 도서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즐거움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습은 저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던 실습이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사서 선생님들 덕분에 뜻깊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의 사서 실습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서

전혜원 / 창원문성대학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어느덧 실습의 마지막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사서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기에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습하기 전 도서관을 이용자의 시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도서관의 대출과 반납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실습을 하며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니 사서는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하기도 하고 이용자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고 이용 가치를 상실한 도서는 폐기하기도 하며 도서관이 순환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습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봤는데 차례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서관 관련 경험입니다. 새로 들어온 도서를 MARC 작업을 해서 청구기호를 생성한 다음 태깅을 하여 서가에 배치해보

기도 하고 도서관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지를 직접 보고 읽어보거나 프로그램 포스터를 직접 만들어보았습니다.

둘째, 사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멀티자료실, 독서문화과 선생님들의 업무 내용을 듣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실들을 둘러보며 했던 경험입니다. 자료실들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주제 도서, 북큐레이션, 정기 프로그램, 배가 상태 등을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과 반납, 서가 정리, 이용자 응대 등 일상적인 업무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거 같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아늑하고 편리한 도서관 뒤에는 늘 숨은 노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서가 되어 다양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문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책방 일기

장참미 / 오누이북앤샵

홀로 운영하는 책방은 작은 일 하나도 직접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책의 입고와 정산, 크고 작은 행사 기획부터 화장실 청소에 이르기까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현상의 유지만 시킬 뿐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은 꼭 티를 내고야 만다. 일에 경중이 없으니 무엇 하나 소홀할 수 없다지만 그럼에도 더 신경 쓰게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 내겐 책방 SNS 관리가 바로 그런 일 중 하나다.

주택이 밀집한 동네. 모르는 사람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책방에게 SNS는 큰 의지가 된다. 입고한 책 소개나 독서모임 공지, 혹은 모객 활동은 모두 SNS를 통해 이루어진다.

올해부터는 매월 초, 책방의 월간 계획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하고 있다. 일반적인 달력 형태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해당하는 날짜 아래에 책방의 크고 작은 이벤트를 적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금요일과 토요일은 책방이 오픈하는 날,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에는 독서모임 공지를. 매월 바뀌는 전시일정이나 북 토크와 같은 오프라인 행사의 일정을 쓴다. 글로 쓰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평범하다. 최선을 다해 만들지만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잘 다루지 못해 완성된 파일은 늘 어딘지 모르게 엉성하다.

비록 멋은 없어도 월간 계획표는 몇 가지 확실한 기능을 한다. 먼저 월간 계획표는 책방의 들쭉날쭉한 영업시간을 다시 한번 공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책방의 영업시간은 오픈 이래로 2번 정도 조정이 있었다. 영업 초기에는 호기롭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운영을 했다. 그러나 책방을 오픈한 후 2년. 한창 손님이 뜸해질 무렵에 코로나까지 합세하자 영업시간의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조정된 운영시간은 손님들에게 불친절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소중한 손님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영업시간은 공지하고 또 공지해도 부족하게 느껴진다.

어설픈 월간 계획을 만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스스로를 위해서다. 월간 계획표를 만들며 나는 여전히 이 작은 동네 책방이 운영되고 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곳에서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책방을 하겠다고 준



오누이북앤샵

비하면서도 이 일이 크게 잘되리라 생각하진 않았다. 예상처럼 책방을 운영하며 책이 한 권도 팔리지 않던 날, 손님이 오지 않는 책방을 지켜야 하는 날들도 많았다. 그렇다고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책방이 망한다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런 날들이 늘어갈수록 나 자신이 망가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세월 좋게 책이나 읽으며 사색이나 하는 삶이 과연 멋진 걸까?’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다짐은 생각보다 빨리 희미해졌다.

손님의 유무를 떠나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로 한다. 손님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책방에는 낭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일’이기도 했다. 사람도 좋고, 책도 좋지만 결국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지켜야 했다. 나는 자주 무기력해졌지만 다행스럽게도 시간만큼은 부지런했다.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도 생겼고 지나온 시간을 함께 보내준 사람들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나의 또 다른 자산으로 남아 주었다. 고민과 상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좋은 일들도 많았다. 그리고 그것들에 기대어 지내다 보니 어느덧 책방의 고정적 일과들이 생겼고 주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덕분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책방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요즘엔 가끔 주문처럼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며 스스로를 자위하기도 한다. 책방의 홍보용으로 시작한 SNS는 어느덧 책방의 일기장처럼 되어버렸다. 하나씩 쌓여간 책방의 기록들은 언젠가 또다시 무력감이 찾아올 때 꺼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대개 잊어버린다기보다 남겨두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쪽에 가까울 테니. 그런 의미에서 올해 12월의 월간 계획표는 어쩐지 몽클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1월이 오면 분명 다시 초조해지겠지만 일단은 이 감정을 조금 즐기기로 한다.



모두의 19호실

박지현 / 책방19호실

책방을 연 지 일 년이 지났다. '책방을 하는 내가 지금의 나보다 낫겠지.' 하는 생각이 만든 허술한 시작이었다. 허술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라는 사실도, 돈벌이가 안 될 거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가볍게 넘겼다. 잘 해보고 싶었지만 '잘'의 의미는 전혀 몰랐다.

처음엔 '이 책방 멋지네'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었다는 걸 이제 안다. 관심도 없었던 《백년 동안의 고독》 상하권을 책장 전면에 배치했고, 누가 읽을까 예상도 되지 않는 마르케스의 자서전도 들여왔다. 내가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책들은 하찮게 보이고 남들이 멋있게 볼만한 책들의 뒤통수만 쳐다보았다.

물론 금방 지쳤다. 다행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와 의미있게 여기는 책의 목록을 다시 정리했다. 책방에 있는 책부터 모임 선정 도서까지 '나'라는 필터 하나만 거친다는 건 한계이고 단점이었지만 그것이 곧 책방의 특징이라고 인정했다. 고심한 책들로 독서모임을 조직했고 여러 번의 모임을 했다. 글쓰기 모임의 커리큘럼을 짜서 글을 쓰고 합평했다. 지역 작가 강연을 기획해서 유의미한 시간을 만들었다. 나에게서 시작된 책방이니 이 모든 것은 나의 성취였고 내가 해낸 것들이어야 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일 년 동안 책방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사람들은 책방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이다. '책방을 왜 시작했냐, 목표나 꿈이 무엇이나?'고 묻는다. 일반적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진 않을 것 같다.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뚜렷하다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방 주인들은 이 질문을 수없이 듣는다. 책방을 운영하는 것이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거나, 책방을 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꿈이나 목표가 있어야 하거나 둘 중 하나다.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 크고 작은 단체들이 책방이 기획하는 문화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창원도서관만 하더라도 책방에서 하는 북토크(강연)에 작가 강연비를 지원하고 동네 책방에서 얼마간의 책을 샀다. 책방들은 큐레이션을 하거나 북토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개인사업자인 책방에 세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뭘까? 서로 간의 이해타산이 맞는 거래겠지만 단순



책방19호실

히 돈으로 치환되는 거래였을까? 책방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그렇다면 책방 주인인 나의 책임은 어디까지인 걸까?라는 생각을 오래 했다.

성취가 없는 일상이 지속되는 것에 지쳐있던 나를 잘 일으켜 보려고 책방을 시작한 것이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일이었다. 원래보다 더 멋져 보이려고 두껍게 화장을 해보기도 했고 가면을 써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민낯을 드러냈고 거울에 비치는 내가 세상의 다라고 생각했다. 거울 걸어놓은 못, 못을 뚫어놓은 벽, 벽을 쌓아 올린 땅과 땅을 땅이게 하는 하늘, 모르는 사이에 내가(동네 책방이) 손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일 년 동안 내가 이뤄낸 것에는 혼자서 만들어 낸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배달해주는 편리함을 뒤로하고 굳이 책방에 와서 책을 샀고, 10% 할인에 5% 적립을 포기했다. 책방이 기획하는 일들에서 선의를 찾아서 칭찬해주었다. 책방의 존재를 함께 기뻐했고 공간을 고마워했으며 많은 이유로 격려를 받았다. 소설 《19호실로 가다》의 '호텔 19호실'은 수잔이 자신을 위해 만든 공간이었다. 오해를 받고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절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지극히 혼자인 공간. '책방19호실'은 이제 나 혼자서 나만을 생각하는 곳이 아니다. 목표했던 바도 아니고 공공의 선에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일 년의 시간이 19호실을 변화시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길 바라게 되었다. 할 수 있는 한 오래 이곳을 지켜야겠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19호실까지 확장할 것이다. 저택 안에 수영장과 골프장을 두고 살 수는 없지만 19호실을 두고 살 수는 있구나 하며 스스로를 편히 두길 바란다.



전염병과 공생이라니?

최미숙 / 정보리책방

전염병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with코로나’를 선언했다. 거의 2년 동안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나날들을 벗어나는 것일까. 해외여행과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상의 변화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을 겪는다고도 한다. 나는 책방을 열자마자 코로나를 맞아 지금까지 한가하게 보내고 있으니... 작은 책방이 사실 그런 곳인데 전염병이 사람들을 꽂꽂 얼어붙게 해서 얼마나 적막했는지 모른다. 진짜로 뜨거운 맛을 본 것이다.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얼마 전에 지나갔다. 불수능이었다고 한다. 수험생들 또한 얼마나 뜨거웠을까? 2년 동안 학교 수업만 제대로 받아도 불안한 시간이었을 텐데 거기에 전염병과 같이 지냈으니. 나이 든 어른으로서 미안함이 크다. 수험생이 그렇고, 아직 어린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불안과 함께 보낸 트라우마가 클까 봐 걱정이 된다. 어른인 우리는 평생 겪어 보지 못한 일을 치러 내고있는 중이다.

기억이 나는 내 어린 시절을 떠올려본다. 봄이면 산에 올라가서 진달래 따 먹으면서 쑥 소쿠리를 가득 채우려고 해 넘어가는 줄도 몰랐다. 여름이면 땀별에서 놀다가 시냇물이 좀 깊은 곳에서 먹을 감고 나와 자갈밭에서 몸을 말렸다. 가을이면 장대 들고 산으로 가 밤을 털어 밤송이를 까서 생밤을 이빨로 오독오독 까먹었다. 한겨울에는 썰매를 탄다고 나가서 하루종일을 보내고 해질녘에야 집에 들어왔다. 그렇게 사계절이 몇 바퀴 하는 동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친구들과 떼를 지어 롤러스케이트장도 가고 떡볶이집으로 몰려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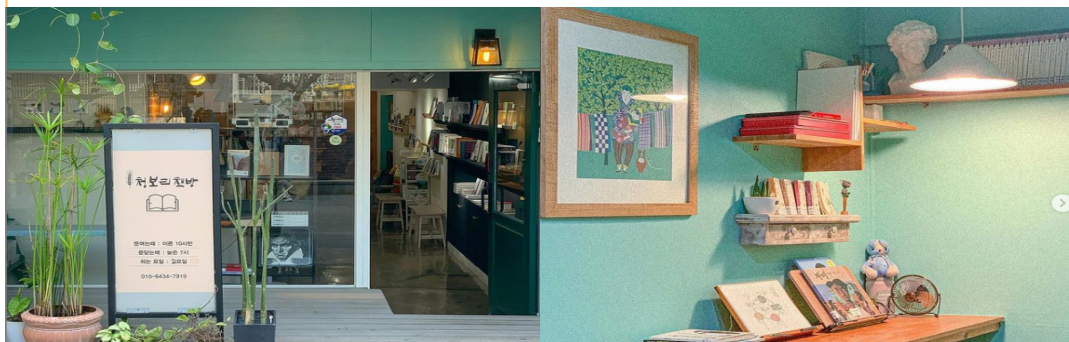
미세먼지, 황사, 기후변화, 전염병이란 말은 없던 시절이었다. 농약을 치는 대 농도 거의 없었고 시장에서 푸성귀와 과일을 사다가 그냥 씻어서 먹었다. 과일을 나무에서 따서 쓱쓱 닦아서 먹는 일도 다반사였다. 내가 크던 시절과 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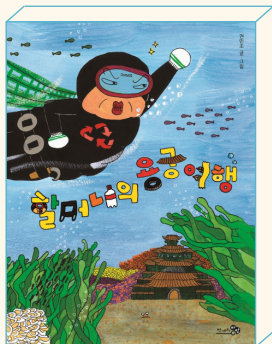


정보리책방

이들이 자라는 시절의 환경이 한참 달라졌다. 사는 환경 못지않게, 먹는 음식은 가공식품이 많아졌고, 교육열 또한 치솟았다. 노는 시간도 모자란데 드디어 전염병 그것도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다. 코비드는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이 엄청난 전염병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치사율이 낮아도 특히 노약자와 기저질환자에게는 위험하다. 독감 바이러스와 성질이 비슷하다고 할까. 그렇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 쓰기과 거리두기와 같은 공적 제약과 더불어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을 택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 일상이 멈추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약한 층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걸 보는 것이 안쓰러웠다. 지금 하고 있는 책방은 2019년 12월에 열 때부터 돈벌이가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재난지원금 대상에서조차도 빠졌다. 정부에서는 온라인 서점의 매출 증가를 이유로 작은 책방까지 엮어서 눈길조차 두지 않았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렀던 유럽의 한 상인은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한꺼번에 얼어붙은 것이 평생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바이러스와 공생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들을 한다. 인간으로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뜻일 것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작은 책방들이 애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작은 책방은 착하다. 책들 속에서 평안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잘가! 바다 쓰레기, 안녕! 깨끗한 바다!

- 「할머니의 용궁 여행」을 읽고 -

김소윤 / 초등부(저) 창원도서관장상 수상자



어느 날 바닷속 동물들이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행히도 아직 그런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슬플 것 같다. 《할머니의 용궁 여행》 속의 아윤이처럼 말이다. 이번 여름 이 책을 읽었을 때 아픈 바다동물들을 보며 환경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우리를 반성하게 되었다.

얼마 전 제주도 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 몸에서는 빨대와 작은 플라스틱 조각에다가 비닐봉지까지 들어있었다고 했다. 뉴스 속 바다거북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책의 용왕 거북이가 코에 박힌 플라스틱 빨대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먹먹해졌다. 특히 책 속의 주인공 할머니가 “이 녀석들아! 니들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래? 나 보내서 육지 사람들에게 말해! 앞으로 플라스틱 없이 살래?” 라고 할머니가 용궁 식구들에게 소리쳤지만 사실은 우리들한테 소리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을 통해 이제 우리는 바다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을 어른들에게도 많이 많이 읽게해서 바다 쓰레기를 줄인다면 아름답고 푸른 바다를 오래도록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22일 ‘지구의 날’ 소등 행사 때 바다거북이 플라스틱 없는 푸른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살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열심히 참여해야겠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런 것으로도 지구는 잠깐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잘가! 바다 쓰레기, 안녕! 깨끗한 바다를 실천할 것이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소원

- 「진짜 내 소원」을 읽고 -

박윤서 / 초등부(고) 창원도서관장상 수상자



여름 방학 동안 경남독서한마당 선정 책을 6권 읽으면서 그 중에서 내용이 가장 짧았지만, 나에게 많은 생각을 준 책이 《진짜 내 소원》이라는 책이었다. 첫 문장부터 나의 얘기인가 싶었다. 엄마랑 같이 읽으면서 엄마가 나에게도 세가지 소원을 물어보셨다.

책과 같이 나의 첫 번째 소원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었다. 시험에서 백점을 맞아오면 엄마는 무척 좋아하시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소원도 책과 똑같이 아빠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였다. 아빠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은 일이 잘 끝나고 포상금을 받으시면 엄청 좋아하셨다. 세 번째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길래, 나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핸드폰 게임을 해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그래 그럼 오늘은 소원을 들어주는 날이라고, 하고 싶은 만큼 해보라고 하셨다. 단, 잠을 자서는 안된다고 꼬박 24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너무 좋아 큰소리로 오~~예를 외치며 내 방으로 가서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시작하였다. 엄마가 숙제하라는 얘기도, 아빠가 운동하러 가자는 말씀도 안하셔서 게임에만 집중하다 보니 단번에 레벨이 올라갔다. 새벽 12시가 넘어가면서 너무 졸리긴 하였는데 게임에서 학원 친구들을 만나 얘기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니 너무 좋았다. 친구들은 부모님 몰래 불을 끄고 한다고 했지만, 난 엄마가 소원 들어주는 거라니깐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새벽 3시가 지나니 너무 졸리고 아파트에는 전부 불이 꺼져 자고 있었는데 하루 밖에 없다는 생각에 게임에 몰두하려고 했지만, 너무 졸려 자려는데 엄마가 24시간 동안 소원은 채워야 한다는 말에 눈물이 나왔다. 그렇게 새벽 6시가 되고 나니 부모님은 회사 갈 준비로 바쁘신데, 나는 너무 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몽롱한 상태로 눈물만 났다. 그렇게 게임으로 날을 샌 나는 학원 가는 길에도 학원을 가셔도 졸리다 못해 헛구역질까지 났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밥맛도 없었다.

회사를 다녀온 엄마가 졸리고 힘없는 나를 보면서, 하고 싶었던 게임 많이 해보니 좋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큰소리로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제야 생각해보니 공부를 잘하는 것은 부모님도 좋아하셨지만 나의 실력도 올라가서 그것도 우리 모두의 소원인 것이었고, 아빠가 돈을 많이 버시면 내가 먹고 싶은 것, 집에 필요한 것도 사고, 놀러가고 싶은 곳도 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 모두의 소원이었지만, 24시간 게임을 하는 것은 나랑 같이 밤을 샌 엄마도 힘들어 보였고 그런 우리를 보는 아빠도 한숨을 쉬셨고, 나도 학원에서도 걸어다니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힘들어서 하루 일과를 다 망쳐 버렸던 것이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소원이라는 것은 모두가 행복한 선한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쁜 소원은 모두가 불행해지면 그것은 소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깊게 깨달은 날이었다.





단단한 우정의 실마리

- 「독고솜에게 반하면」을 읽고 -

이수빈 / 청소년부 창원도서관장상 수상자



탐정이라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군가는 이를 환상적인 존재로 떠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내 또래에서는 울무처럼 본격적인 친구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허구의 것을 빌려와 사실과 여론을 조성하는 누군가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격지심의 베일을 쓴 채 흐린 눈을 하고는 언젠가 자신이 만들어 낸 뿌연 시야에서 벗어날 공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그를 따르면 굽신대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말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 말 그대로 ‘나를 비롯한 남들과는 다른 세계에서 온 것만 같은 아이’가 들어온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호기심 가득한 명탐정 소녀가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될 것만 같은 독고솜에게 반한다면? 울무는 어떻게 독고솜에게 경계를 풀었을까 고민해 보았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울무는 무언가를 격렬히 알고 싶을 때만큼은 경계라는 존재가 무의미해진다.’였다. 한 사건을 해결하려 나서기 전을, 그러니까 그 사건의 범인을 찾기 전까지를 예로 들자면, 울무는 어떻게 보면 사건을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다 무언가 발목에 걸린다 싶은 순간 경계를 허물고 나서는 듯 보였다. 발목을 잡은 것을 손으로 감싸 쥐고, 또 다른 손에는 탐정 수첩을 들고서 말이다.

울무에게 독고솜은 정말 미제의 사건 그 자체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는 작은 의심을 해봤지만, 나는 독고솜이 울무에게 어느 대상을 사건에 연루된 인물, 추리나 사건의 해결로써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처음으로 넌지시 교훈을 준 첫 번째 사람 같다. 글을 시작하는 맨 첫 부분에, 어쩐지 곁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독고솜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때부터 독고솜은 이 모든 사건의 중심, 주인공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내가 울무에게 독고솜은 미제의 사건 그 자체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끌고 왔을 때, 독고솜에 대한 울무의 첫 사건 명은 무엇이였을까 생각해 보았다. ‘독고솜 파헤치기 대작전’? ‘알고 싶다, 독고솜’? 물론 다 맞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울무가 독고솜에게 선뜻 용기 내어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울무는 독고솜이 해결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울무가 독고솜을 단지 미제 사건이라 생각했다면, 아직도 독고솜은 울무에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한다. ‘명탐정의 옆자리’를 마무리 짓는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 사건의 주인공이 아닌, 명탐정의 파트너로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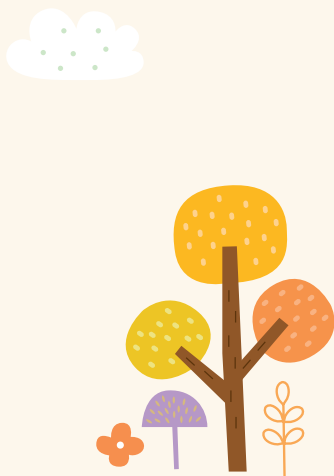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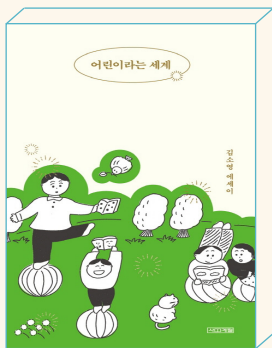
있었기에 나는 그 울무가 숨이를 부르는 목소리를 상상해보며 그 문장들을 얼마나 곱씹었는지 모른다.

울무와 숨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달콤한 대립은 미소가 변질 정도로 사랑스러웠다. 숨이라 불러줘서 고맙다는 숨이와, 이 말을 숨이가 만들어 낸 기이한 현상과 함께 귀에 담아낸 울무가 함께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예뻐다. 새 친구를 만나면 알아가는 과정이 은연중 있기 마련이지만, 신비한 주문을 걸 줄도 알고, 집에 손님을 들이기 위해 일주일 간 청소를 한 뒤, 24시간 동안 잠에 빠지는 이 묘한 소녀는 그냥 친구랑은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게 분명하다. 숨이도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따뜻한 울무의 마음에 스프르 미소를 띠게 되었을 것이다. 그 웃음에 울무는 또 숨이에게 반하고, 그런 귀여운 모습에 숨이도 분명 울무에게 반했을 게 분명하다. 나도 이 두 인물의 사랑스러운 관계에 흠뻑 빠져 반해버리고 말았으니까 말이다.

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사건을 악화시키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울무와 숨이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건을 해결하려 나섰고, 울무는 아픔이 있는 친구를 사건의 해결로써 범인을 찾고 상황을 종결시키려는 것에서 벗어나 그 친구의 상황을 직시하여 위로하고 공감해 줄 줄 아는 더욱 성숙한 타정이 되어가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겪는 모습에서는, 내 또래 아이들에게서 흔히 느낄 수 없던 감정을 담고 있어 어쩔 저리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놀라웠다.

어쩌면 숨이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울무의 마음과 생각 덕이었던 것 같다. 모든 걸 받아들일 줄 알고, 열린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며, 또 사건 추리로 다져진 근거를 바탕으로 두어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마음과 생각 말이다. 내가 숨이었다면, ‘숨아.’하고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불러준 목소리가 귀를 타고 넘어온 순간, 울무는 내 파트너, 내 소중한 특별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내 손을 놓치지 않고, 놓치더라도 다시 단단히 쥐여줄 수 있는 소중함 그 자체가 되고야 말았으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을 지닌 친구들은 참 예쁘게도 웃는다. 그렇게 나는 서울무와 독고숨에게 또 반해버렸다!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고

윤부남 / 일반부 창원도서관장상 수상자



어느 날 학교도서관에 가서 무심코 책을 집어 들었다. 이 책의 제목 때문이었다. 《어린이라는 세계》라니, 세계라는 말을 붙인 작가의 말이 궁금했다. 너무 거창하고 광활하게 느껴지는 말이지만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직업이 교사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 내가 만나는 어린이는 셀 수도 없다. 우리 반에서 만난 어린이들도 있지만 학교를 거칠 때마다 수많은 어린이와 만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니 내 삶은 어린이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책을 읽으며 무수한 어린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무서워하는 어린이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아들 생각이 났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다. 아들의 성격이 신중한 탓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두운 것들을 참 싫어한다. 지금도 혼자서 잠드는 게 힘든 어린이다. 악몽을 꿔올 때 아무도 곁에 없으면 무섭다고 했다. 사실 나도 공감했으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꿈일 뿐이라고 다독였다. 나도 악몽을 꾸면 다시 잠들기 싫으면서 말이다. 내가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전에 안아주는 것뿐이다. 이제 키도 커진 녀석을 언제까지 이렇게 다독여 줘야 하나 싶지만 이런 행동 말고는 해 줄 것이 없다. 아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유독 혼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를 달래주었지만, 살다 보면 선생님께 혼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엄마 손에서 크는 아이가 아니니 온전히 혼자서 견뎌 내야 하는 일들이다. 집에 돌아오면 다친 마음을 다독여 주는 것 말고는 없었다. 마음이 타들어가도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제 학교생활이 좀 익숙한 학년이 되어서 인지 아들은 혼날 일을 만들지 않고 혼이 나도 덜 힘들어한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상처 입는 일들은 많다. 아들을 보며 내가 그동안 교육이라는 목표로 혼냈던 어린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린이들이 혼났던 상황은 다 달랐지만 어쨌든 모두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이제 덜 혼내고도 어린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데, 과거의 미숙한 내가 안타깝고 지나간 제자들에게 참 미안하다.

가장 외로운 어린이에 대한 글을 읽을 때는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 작가의 어린 시절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어서 더 공감이 갔던 거 같다. 나의 어린 시절에는 사실 주변이 거의 비슷하게 힘들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너무 부러운 친구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어린이들을 보면 내가 어릴 때 보다 훨씬 외롭고 쓸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다. 교과를 가르치다 보면 경험을 말하는 활동이 많다. 김군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해외 여행도 국내 여행도 많이 가 본 아이이고 최군은 여행을 꿈꾸기 힘든 아이이다. 그런 아이들이 모두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가족에 대해 가르칠때도 말을 거르느라 허끝이 시리다. 이 말을 하면 저 아이가 혹시 상처받을까 조심스럽고 저 말을 하면 이 아이가 걸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단단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우리 교실에서는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올해 뉴스에서는 아동학대가 참 많이도 나왔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더 심할 것이다. 법이나 인식이 미비했던 과거는 방임이 벌어져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가정의 일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부모의 삶에 함께 간혀서 무채색의 나날을 보내던 어린이들이 생각한다. 이제 성인이 되었을 텐데 그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난 교직 생활 중에 내가 알던 어린이가 성인이 되지 못하고 하늘로 떠난 일이 한 번 있었다. 내 제자는 아니었으나 지나며 인사하던 아이의 부고를 듣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었다. 내가 직접 가르치던 아이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문득 그 아이가 생각나고 가슴이 시리다. 어린이들은 아직 자신의 삶을 지키는 힘이 부족하다. 때로는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운 어린이도 있다. 어린이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는 존중 받고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

어린이들은 사랑 에너지를 금방 알아챈다. 자신들을 대하는 어른이 사랑 에너지로 대하는지 부정 에너지로 대하는지 알아채고야 만다. 그들의 사랑 센서는 항상 최첨단이다. 어린이들과 마음을 통한 교사들은 일 년 내내 편한 마음으로 수업할 수 있지만, 통로가 닫혀버린 교사들은 사막을 걷는 느낌으로 살아야 한다. 누구나 평화로운 교실을 꿈꿀 것이다. 그러려면 자신 안에 사랑 에너지를 깨울 수밖에 없다. 초보 교사 시절에는 어린이를 바꾸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 지금 보서는 참 안타깝지만, 그 시절의 나는 진정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저 기다려주고 사랑 에너지를 깨워 바라봐 주는 지금이 훨씬 평화롭다. 어린이들도 행동을 쉽게 바꿔준다. 어린이들은 학창시절 무수히 많은 교사를 만난다. 내가 그들을 스쳐 지나가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만남을 돌아보았을 때 나와 어린이의 세계에 모두 평화가 남아 있기를 바란다.



3

참여 마당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

정아은 / 천년의 상상

‘일’이 가져다주는 것은 일정액의 금전만이 아니다. 일은 수행하는 이에게 뭔가를 성취했다는 만족감을 안겨주고, 일로 인해 파생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사한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며 부과된 일을 하고, 수행해낸 일의 성과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경험은 그의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 만족스러운 자아상을 만들어 낸다. - 박○영 -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을 ‘일’로 인정하지 않기에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경제적 인간’에는 전업주부로 사는 여성이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적 인간은 처음부터 전체 인간이 아닌 일부 인간 또는 하나의 성별, 즉 ‘남성’을 모델로 한 개념이었다. - 이○영 -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고가 단단해야 한다. 성차별적 통념으로 점철된 말이 날아왔을 때 움츠리면서 적개심을 분출하지 않으려면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 성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말이 불시에 공격해왔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려면 막연한 분노나 억울한 정서를 넘어서는 뭔가를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 - 이○은 -

21세기는 성평등이 실현되는 시기처럼 보인다. 여러 분야에서 법적 관습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성큼 앞으로 나아간 분야도 많다. 하지만 육아와 살림이라는 생활 바탕을 이루는 분야에서는 아직도 원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쳇바퀴를 돌고 있는 듯하다. - 소○환 -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에 이르는 길이 꼭 한 가지만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한 권의 책을 통해 왔다는 사실을. - 강○연 -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마차가 굴러가게 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를 무상으로 재생산해주는 ‘주부’이다. - 정○영 -

결혼과 함께 수많은 종류의 집안일이 나의 ‘의무’가 되었고, 구름처럼 많은 이들이 내게 그 의무를 실행하라고, 그것도 곱게 화장한 얼굴로 활짝 웃으며 실행하라고 권고했다. 누가 의무라고 정해주면 그 일을 미치도록 싫어하는 습성이 있는 나에게는 결과가 뻔히 내정된 행로였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내가 집안일을 많이 하지 않으며 자랐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으리라. - 양○아 -

새로 사권 친구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간략한 편지글로 적어서 응모



보건교사 안은영 정세랑 / 민음사

은성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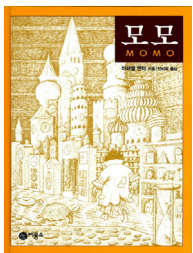
은성아 안녕! 동갑인 너와 친하게 지내게 되어 정말 좋은 거 같아. 내 생활에 활력이 되는 거 같다. 너에게 최근 내가 읽은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책을 추천해. 판타지를 좋아하지 않는 내가 읽어도 너무 재미있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지친 3월 너에게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욱 친하게 지내자



독고솜에게 반하면 허진희 / 문학동네

To 황서윤

안녕?! 나는 너의 친구 혜은이야! 너에게 좋은 책 한 권 추천해줄게. 허진희 작가의 《독고솜에게 반하면》이라는 책이야.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는 독고솜, 서울무에게 항상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야. 캐릭터 설명을 하자면 독고솜은 마녀, 서울무는 탐정이야. 정말 재미있겠지? 꼭 읽어보길 바라~! 추신. 우리 또래 이야기여서 인생책으로 교환 삼아 읽어도 좋을 것 같아!!



모모 미하엘 엔데 / 비룡소

서윤아, 안녕. 너에게 《모모》(미하엘 엔데)를 추천해 주고 싶어. 모모와 함께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훑쳐간 도둑을 잡으러 모험을 떠나자. 정말 흥미진진할거야.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히로미사 레이코 / 길벗스쿨

To 시영이

시영아, 안녕? 내가 추천하는 책은 《전천당》이야. 새로운 과자가 나올 때면 항상 기대돼. 이 책은 믿고 볼 수 있을 만큼 재미있으니 읽어봐~



퐁퐁이와 툄툄이 조성자 / 시공주니어

헤민이에게

헤민아 안녕? 나 경석이야.

나는 너에게 《퐁퐁이와 툄툄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어. 왜냐하면 퐁퐁이는 마음씨가 좋지만 툄툄이는 자기만 생각해. 그러니까 툄툄이가 되지 말고 퐁퐁이가 되어야 해.

책이나 도서관에 얹힌 위로받은 사연 또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위로의 글 응모

활자중독증에 가까운 제가 50대에 들어서면서 건강도 저하되고 노안도 오고 책 보기가 무서웠어요. 딸아이 대학 기숙사가 창원이라 들르게 된 창원도서관에서 평소 좋아하던 책들이 잔뜩 있어 신났었습니다. 요즘 열심히 책 보고 있고 나이 듦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초등 입학 후 자존감과 관련하여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존감 관련, 자신의 감정 조절 관련 책을 읽고 조금씩 이겨 내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의 첫 학교생활을 응원한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거야. 사랑한다. 파이팅!!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대학 졸업 후 임용 시험에 낙방하고 노량진에 올라갔어요. 처음 갔던 하숙집 아줌마가 사기를 쳐서 정말 분노했어요. 1분 1초가 아까워 화장실도 뛰어다녔던 그 때. 그 하숙집 아줌마가 미워서 공부가 되질 않았어요. 미운 마음이, 분노가 제 삶을 지배했어요. 노량진 서점으로 가서 ‘용서’에 관한 책을 모조리 읽었어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구절이 저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몇 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다가 새로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적잖이 고민이 많았다. 이전 직장에서는 많이 지쳐있었고 새로운 일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기만 했다. 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준 것이 바로 ‘400일간 김치버스 세계일주’의 류시형 작가 강연이었다. 도전에 망설임이 없었고, 여전히 좋아하는 다양한 일을 해가는 모습이 그 때의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용기를 주었다.



책이나 도서관에 얹힌 위로받은 사연 또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위로의 글 응모

뒤늦게 둘째를 낳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육아에 매진하는 날들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 아기에겐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아기는 책 읽어주는 소리에 누워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고, 그림책 속 글자 하나 그림 하나하나가 모두 위로의 언어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한 달간 무급휴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불안정한 상황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집에 있는 책들을 읽기 시작하고, 책에 관심을 가지면서 책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는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이의 슬픔과 아침 이슬은 오래 가지 못한다.” -조르주 상드-
학교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내 생애 최고의 캠핑》을 읽어줬더니 신나게 깔깔거리며 웃는다.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이 인생을 즐겁게 해주고, 우울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데니스처럼, 내 아이도 책을 통해 슬픔을 덮을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하길 바란다.



수영아, 지금 몸도 마음도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침’이라는 낯선 길에 서 있어서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릴 거야. 네가 달려온 20년의 직장생활, 이제 1년 쉬어가며 재정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 너에게 《19호실로 가다》를 추천해. 나는 이 책에서 위로를 받아 지금 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느낌이거든. 수진이 ‘자기만의 공간’을 갈구했듯 우리도 우리의 19호실이 필요했던 것 같아. 우리 잘 이겨 내자. 힘내!



대학교 때부터 20년 이상을 함께
해 온 창원도서관! 즐겨찾고 사랑
하는 이 공간이 오랫동안 함께 하
길 빌며, 더불어 38주년 기념을
축하합니다.

내가 태어난 1983년도에 도서관도 함
께 문을 열었어요. 그때도 이웃이었
고, 지금도 이웃이라 자주 찾는 창원
도서관... 38주년 개관을 아주 많이
축하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서 소중
함을 잘 몰랐지만 코로나 상황
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없는 창
원도서관이 많이 아쉬웠답니
다. 벌써 38번째 개관기념일을
맞은 창원도서관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함께해요~~~

창원도서관의 38살 생일을 축
하합니다!!
5년 전 인연을 맺은 후로 이사
를 가고 나서도 친숙함과 좋은
행사와 프로그램이 많아 계속
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쭉~
창원의 가장 멋진 창원도서관
으로!!

38번째 개관기념일을 맞은 창
원도서관을 축하드려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손잡고 다
녔었는데 어느새 내년이면 고
등학생이 된답니다. 언제나 우
리 곁에 함께해주세요. 감사드
려요.

마산도서관 리모델링 관계로 올
해 창원도서관을 처음 가봤는데
요. 소장도서가 많아 과제 작성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
로도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
간으로 자리잡아주시길 바랍니
다. 38살 생일 축하드려요!

제 나이 서른 여덟은 치열한 고민으로 점철됐어
요. 결혼에 대한 압박, 회사에서 뭔가 성취하고
픈 욕구, 큰 길로 거침없이 갈 것인지 작고 소소
한 길이라도 천천히 갈 것인지 고민이 많았지
요. 창원도서관도 새로운 주변 환경 등으로 변
화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원합니다! 내 친
정집 같은 창원도서관을요^^

창원도서관님, 안녕하세요!
벌써 38번째 생일이라니 정말 축하드려요~~~
창원도서관에서 빌려주는 도서와 DVD 같은 것을 통해
저는 학교 숙제도 잘할 수 있었고 창원도서관에 가는
것이 매일 설레고 신났어요^^ 행사도 많아 정말 좋았
구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을 크게 기쁘
게해주세요~ 고마워요~~~~~



독서진흥행사

‘38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응모 글

창원도서관에 다닌지 12년 되어
가네요~ 오래 되어서인지 창원
도서관에 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독서에 집중하고 다양한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 마음의 양식을 쌓아주는 창원
도서관 !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

10년 넘게 매주 함께 하
고 있는 창원도서관에 감
사와 38주년을 축하합니
다. 앞으로도 좋은 책 많
이 이용하겠습니다.

학창시절 동고동락했던~ 창원
도서관^^ 저랑 나이가 같아요!!
초중고를 내동에서 보내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늘 찾아옵니
다. 38세 창원도서관 개관기념
일 축하합니다^^

38살!! 저랑 나이가 같아요! 회사 다니
기 전에는 공부하러 가고 회사 다니고
있을 때는 책보러 가고 아이를 낳고는
아이책 빌리러 가고 제 인생에 창원도서
관은 한구석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앞
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창원도서관이
되어주세요! 생일축하해요^^



38번째 생일 축하해요~ 저와 같은 나
이네요^^

어릴 때 엄마랑 다녔던 곳 이제는 초
등학생 아이와 같이 다닙니다. 좋은
책과 사서분들 프로그램 등 가까운 곳
에 이런 도서관이 있어서 행복하네요.
오래오래 우리들 곁에 있어 주세요^^

어렸을때 엄마가 창원도서관
에 버스타고 데리고 가서 유
아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
어요. 지금도 엄마랑 주말마
다 버스타고 가서 수업도 듣
고 책도 많이 빌려와요. 저랑
은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생
일 축하축하해요.^^

38번째 창원도서관 개관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가는데 손주들과 연극도 보고
수업도 하면서 주말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
들 감사드리며 사서 분들도 친절하고 책도 잘 찾아줍니
다. 생일 축하해요

4

직원
글마당



종합자료실 막내 사서의 하루

곽상호 / 문헌정보과

‘삐비비빅 삐비비빅’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사서로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분주한 시가지를 지나 교육단지로 들어서니 가을을 뿜내는 단풍이 제 마음도 곱게 물들여줍니다. 등갓길에 삼삼오오 걸으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학생들을 지나면 도서관 입구에 다다릅니다. 문득 학교 사이에 서 있는 도서관이 학생들 사이에서 계신 꼬장꼬장한 서당 훈장님처럼 느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이소~”

“네,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종합자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차장님과 선배님께서 따듯하게 반겨주십니다. 도란도란 간밤의 안부를 나누다 보면 이윽고 올해 말까지 함께 근무하시는 두 분이 도착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업무도 시작됩니다.

먼저 예약 가능일까지 대출하지 않은 도서와 무인반납함에서 수거한 도서를 정리합니다.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야 연체 반납이 된 도서를 보며 안타까운 탄식을 내뿜기도 하고, 수 번의 반납 연락 끝에 드디어 돌아온 도서를 보며 속으로 환호의 탄성을 내뿜기도 합니다.

정리가 끝나면 택배로 배송될 도서를 챙깁니다. 상호대차 신청도서, 다른 도서관 복귀도서, 택배 대출 도서, 책나래 도서, 책바다 도서...소풍 때 보물찾기를 하듯 매의 눈으로 한 권 한 권 찾아내어 포장하고 무게를 달아서 접수를 합니다. 매일 택배를 발송하지만 제법 많을 때는 쌀 한 가마 만큼 도서를 포장합니다. 이런 날은



마지막 택배를 옮기면 나도 모르게 ‘꽝차’하면서 숙였던 허리를 펴게 됩니다.
운송장까지 붙여서 작업을 마무리하면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자료실을 항상 개방하는 까닭에 아쉽게도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급식실이 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성인이 되어 옆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 식사 후 별을 찢고 인근 공원을 걸으며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봅니다. 오전에는 다른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이용자 서비스 업무를 하였지만 오후에는 반대가 됩니다. 문의 전화, 대출 및 반납 지원, 회원가입, 도서검색...이용자 서비스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통계 결과를 제출합니다. 작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찰나에 몰입을 하지 않으면 진도가 더디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문서가 엉망이 됩니다. 어느새 사위가 어둑해지면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사서로서의 하루도 지는 해와 함께 저물어갑니다.
부임 되어 온 지도 어느덧 일 년이 다 되어 갑니다. 창원에서 줄곧 생활을 해왔고 이미 이용자로서 창원도서관을 다녔는데도 근무지로서의 이곳은 생경하기만 하였습니다. 복잡한 조직 구조와 처음 뵈는 선배님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업무로 헤매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며 쌓이는 경험만큼 흐뭇한 추억도 하나둘 쌓여갑니다. 전임지에서 봤는데 여기서 다시 만난 경원중학교 테니스부 학생들, 복불복 이벤트에 ‘뽕’이 나와서 눈물을 글썽이던 어린이, 응모 사연이 전시되어 전시물을 기념으로 소장하길 원하시던 아주머니, 친절하게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기어코 음료수 한 병을 건네고 가시는 이용자분...
오늘도 읽던 책을 덮으며 내일 올릴 알람을 확인한 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김가은 / 운영지원과

글 쓰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글 자체를 쓸 줄 모르는 나에게 글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나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글을 써본다.

이 글의 주제인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글의 제일 마지막에 쓰겠다.

나는 화목한 집안의 일남 일녀 중 큰딸이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책을 좋아하셨다. TV 보는 것보다 책을 읽고 토론을 하셨던 것 같다. 엄마는 워킹맘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도 아침밥을 푸짐하게 차려주셨고 고등학교 때는 엄마 회사 가기 전 꼭 학교 까지 태워주셨다. 엄마 아빠는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다. 나는 고생을 모르고 자랐다.

대학교 때 1년 동안 중국 북경에 교환 학생으로 갔다 온 적이 있다. 엄마 아빠 품을 떠나 처음으로 혼자 살아남아야 했었다. 그런데 말이 공부하러 갔지 거의 여행만 했다. 위인을 좋아해서인지 공자의 고향인 산둥성 공부에 가서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되인지 보고 싶어 태산 정상에 가 보았고, 진시황이 있는 서안, 유비의 촉나라인 사천성의 웅장한 협곡에도 가 보았다. 중국 하면 모택동의 고향에 가봐야 할 듯해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유명(?)해진 우한의 기차역 앞 광장에서 숙박료를 아끼고자 돛 자리를 펴고 하룻밤을 지낸 적도 있었다. 상해는 역시 루쉰이지 하면서 문화혁명의 루쉰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다녔었다. 중국에서 아빠 엄마도 보고 싶었고, 낯선 곳에서 적응해야 하고, 혼자 아픈 것도 서럽고 그랬다. 그래서 그런지 웃자고 하는 말 아니고 나는 중국에서 1년 동안의 생활이 내 인생의 최대 고생인 줄 알았다.

엄마 아빠 소원이 선생님 되는 것이라 해서 공주에 있는 교육대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나중엔 포기했지만) 엄마가 계속 대학원을 따라 다니셨다. 그때 엄마가 그랬다. 나는 너처럼 해외연수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버스 타고 기차 타면서 공부하러

다니는 것이 부럽다고. 안 그래도 미래도 불안하고 힘든데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배부른 소리를 하니깐 막 짜증이 났었다.

몇 년 후에 엄마가 아팠다.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는 악마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엄마가 아픈데 몇 달 있을 나의 결혼식이 더 중요했다. 결국에는 결혼식 준비를 혼자 하고, 결혼식에도 엄마가 참석하지 못했다. 짜증이 났다. 왜 나만 이러냐고.

그 후로 딸을 두 명 낳았는데, 아픈 엄마 도움 없이 두 딸을 낳았고, 두 딸을 지금까지 엄마 도움 없이 키웠다.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친정엄마 도움 없이 애들 낳고 키웠다고 떠들고 다녔다. 혼자 일하면서 애들 키우는 것이 사실 힘들기도 했다.

작년 연말에 엄마가 돌아가셨다. 꼬박 11년을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다. 효녀가 되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창원에 있는 종다는 요양병원을 알아보게 되었다. 엄마를 간병 하고자 창원 쪽으로 전보 신청서를 제출하여 창원도서관에 오게 되었는데, 엄마는 도서관 오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버렸다. 엄마 나이 61세였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 몸의 형체만 달라질 뿐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고, 우주 전체로 보면 삶과 죽음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우리 엄마만큼은 안 죽고 내 옆에 좀 있었으면 했는데. 다시 못 만날 것도 알지만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요즘 엄마 없는 하루하루가 이제껏 힘든 것들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엄마가 그리고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적어 보겠다. 부디 엄마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는 엄마 없어서 나보다 더 많이 방황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동생이랑 아빠는 꼭 지켜줄게. 걱정마. 고맙고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 밖으로

양한기 / 독서문화과

집에만 박혀 살던 나에게 캠핑이란 TV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다가가기 어려운 이상 속의 취미였다. 자연을 즐기고, 사람을 즐기고, 시간을 즐기고, 여유 속에 사는...

하지만 ‘캠핑용품 엄청나게 비싸다던데’, ‘주말에는 쉬어야지’라는 다양한 핑곗거리를 대며 시작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평범하고 일상적인 금요일 저녁, 친구와 술을 마시다 별생각 없이 나는 ‘캠핑가자’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이 기나긴 캠핑스토리의 시작이 되었다. 친구는 좋다며 그 자리에서 그늘막과 테이블을 샀고 그다음 주 바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급작스러웠지만 드디어 캠핑을 간다는 생각에 설레고 또 설레기 시작했다.

물론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잡고 캠핑을 가봤지만 나는 그저 일회성 이용자일 뿐인 캠핑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제작자가 되어 캠핑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그려내려고 한다. 그 설렘, 기대를 가지고도 캠핑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역시 TV에서 보는 캠핑은 좋은 모습, 편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었다. 생각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았다. 그늘막 치는 방법, 캠핑에 필요한 팁, 무쇠 팬에 고기 굽

는 방법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일주일 동안 나의 일과는 출근-퇴근-캠핑 유튜브 시청이었다. 열심히 캠핑 공부를 하다 보니 캠핑에 대한 두려움은 사그라지고 기대감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첫 캠핑의 날이 밝아왔다. 그동안 셀 수 없이 봐왔던 캠핑 유튜버들처럼 차 트렁크에 용품을 차곡차곡 싣고 친구와 함께 ‘본포수변 생태공원’으로 움직였다.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강가의 바람이 우릴 반겨주고 먼저 자리 잡은 캠퍼들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주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노하우를 풀어낼 차례다. 그래도 생각보다 열정적으로 공부했나 보다. 어렵지 않게 타프를 치고 테이블을 설치하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우리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제 즐길 시간이다. 사람을, 자연을, 여유를 즐길 시간이다. 붉게 물든 화로 위에 익어가는 고기들과 투명하게 찰랑거리는 알코올이 우리들의 입안에서 춤추고 그 춤에 들떠 평소에 바빠서 나누지 못했던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덧 그 왁자지껄한 시간도 지나가고 이제는 온전히 자연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나와 친구는 그저 우리 앞의 잡초, 풀벌레, 강가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었다. 속으로는 우스웠지만 모 예능에서 나온 “조명, 온도, 습도...”라는 말이 지금 딱 어울리는 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텐트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이상한 말이지만 불편한 잠자리에서 편안한 잠을 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개운함이었다. 어제의 사람이, 자연이, 여유가 나에게 편안함을 가져다준 듯했다. 그 개운함을 가지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신 뒤 아침 공기도 한 모금 마시고자 강가를 걸으러 갔다.

밤에 보았던 풀벌레와 강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렸다.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 친구는 “이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에 빠지는구나!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네...”라며 씩씩한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그렇게 산책을 마친 뒤 우리가 어제 어질러 놓았던 허물들을 조금씩, 천천히 정리하며 첫 캠핑을 마무리했다. 첫 캠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다.

언제 내가 이런 여유를 즐겼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힘들게 살아오진 않았지만, 항상 열정적으로 살아왔고, 뭐든 정확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삶과 미래가 불행하고 불품없을 것이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 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고 아무 탈 없는데... 이 별거 없고 준비도 안 된 캠핑이 내 삶의 힌트를 찾아다 주었다.

약속시간에 1분만 늦어도 신경 쓰던 나에게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던 나에게 현재보다 미래를 걱정하던 나에게 조금 풀어져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캠핑을 계속하다 보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힌트를 줄 것이다. 그 힌트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간 인생의 정답을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1년 독서동아리에서 읽은 책

어린이

한글 독서동아리				한글 독서동아리			
회차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회차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중요한 사실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	보림	1	오줌이 찹끔	요시다케 신스케	위즈덤하우스
2	인사	김성미	책읽는곰	2	건방진 장루이와 68일	황선미	위즈덤하우스
3	친절 세상을 바꾸는 힘	엘리스 그린	비룡소	3	깡 없는 뽀기 기계	곽유진	비룡소
4	새똥과 전쟁	에릭 바튀	교학사	4	리무산의 서울 입성기	박경희	뜨인돌어린이
5	또 마트에 간게 실수야!	엘리즈 그라벨	토토북	5	토끼는 화장품을 미워해	태미라	위즈덤하우스
6	수학에 빠진 아이	미겔 탕코	나는별	6	마사코의 질문	손연자	푸른책들
7	빈 화분	데미	사계절	7	엄마 감옥을 탈출할거야	서석영	바우솔
8	문제가 생겼어요!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논장	8	녹색 인간	신양진	별숲
9	터널	앤서니 브라운	논장	9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이혜령	잇츠북
10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었는데	로버트 배리	길벗어린이	10	5번 레인	은소홀	문학동네

청소년

글밥 독서동아리				책수다 독서동아리			
회차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회차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페인트	이희영	창비	1	나는 나를 돌봅니다	박진영	우리학교
2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비룡소	2	진이 지니	정유정	은행나무
3	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	이남석	책세상	3	5월 18일, 맑음	임광호	창비
4	인공지능 해부 도감	인포비주연구소	더숲	4	착한 소비는 없다	최원형	자연과생태
5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김성호	내인생의책	5	알로하, 나의 엄마들	이금이	창비
6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프 톨스토이	창비	6	시인 동주	안소영	창비
7	1의 두려리	김선희	소원나무	7	BTS 덕분에 시작하는 청소년 심리학 수업	김현경	명진서가
8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난중일기	이순신	보물창고	8	데미안	헤르만 헤세	민음사
9	환경과 생태 쫓아는 10대	최원형	풀빛	9	지금은 없는 이야기	최규석	사계절
10	세상을 바꾼 음식이야기	홍익희	세종서적	10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찰리 매커시	상상의힘

2021년 독서동아리에서 읽은 책

성인

남문 독서동아리				한마음 독서동아리			
회차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회차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시민의 불복종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은행나무	1	코로나 사피엔스	최재천 외	인플루엔셜
2	남한산성	김훈	학교재	2	어른의 어휘력	유선경	앤의서재
3	나를 부르는 숲	빌 브라이슨	까치	3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해냄
4	페루, 내 영혼에 바람이 분다	손미나	예담	4	코스모스	칼 세이건	사이언스북스
5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	정아은	천년의상상	5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박우란	유노라이프
6	독의 꽃	최수철	작가정신	6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올리히 슈니벨	인플루엔셜
7	숨	테드 창	엘리	7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	정아은	천년의상상
8	시녀 이야기	마가릿 에트우드	황금가지	8	태어난게 범죄	트레버 노아	부키
9	기억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9	나이듦에 관하여	루이즈 에린슨	비잉
10	허구의 삶	이금이	문학동네	10	가벼운 나날	제임스 설터	마음산책
11	탁월한 사유의 시선	최진석	21세기북스	11	서양미술사	에른스트 H. 고틀리치	예경
12	뜻하지 않게 살게 된 요즘 사람들에게	김형찬	숨쉬는책공방	12	지리의 힘 1,2	팀 마샬	사이
13	월든	헨리 데이빗 소로	은행나무	13	달려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팩토리나인
14	모르는 여인의 편지	슈테판 츠바이크	세창출판사	14	지금 행복하고 싶어	이소연	중앙북스
15	세 여자 1,2	조선희	한겨레출판	15	나의 아름다운 이웃	박완서	작가정신
16	팩트폴리스	한스 로슬링 외	김영사	16	존엄하게 산다는 것	제럴드 휘터	인플루엔셜
17	붉은 대문	린위탕	깊은샘	17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포루그 파로흐자드	문학의숲
18	열두 발자국	정재승	아크로스				
19	미학 오딧세이 3	진중권	휴머니스트				



2021년 독서동아리에서 읽은 책

성인

성인 독서동아리			
회차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역사 속에서 걸어온 사람들	나카지마 아츠시	다섯수레
2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창비
3	우리 시대 고전 읽기	정승민	놀민
4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	정아은	천년의상상
5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	해냄
6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나태주	열림원
7	아침의 피아노	김진영	한겨레출판
8	에밀	장 자크 루소	한길사
9	복종	미셸 우엘벡	문학동네
10	법정 행복한 삶	김옥림	미래북

소나기 독서동아리			
회차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페스트	알베르 카뮈	민음사
2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	RHK
3	흑산	김훈	학고재
4	떨림과 울림	김상욱	동아시아
5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에밀리에스파하니 스미스	RHK
6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히 뵐	민음사
7	채식주의자	한강	창비
8	역사의 역사	유시민	돌베개
9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열린책들

그림책에게 배웠어 독서동아리			
회차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1	사기병	윤지희	웅진
2	들꽃 아이	임길택	길벗어린이
3	마음을 지켜라! 뽕가맨	윤지희	보림
4	메두사 엄마	키티 크라우더	논장
5	하루거리	김휘훈	그림책공작소
6	오래 슬퍼하지 마	글렌 린트베드	느림보
7	시몬의 꿈	루스 마리나 발타사르	찰리북
8	나무 도장	권윤덕	평화를품은책
9	거리에 핀 꽃	존아노 로슨	국민서관
10	숨	노인경	문학동네
11	안녕	안녕달	창비



해돋이 2021년 제34집

인 쇄 일 2021년 12월 30일

발 행 일 2021년 12월 30일

발 행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문헌정보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03

(055)278-2832

<http://cwlib.gne.go.kr>

비매품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03 Tel. 055)278-2832
<http://cwlib.gne.go.kr>